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正 淑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연구

—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

**An Aspect of an Alienation
in Park Kyoung-Lee's Novel**

2001年 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現代文學專攻

金 鈴 美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正 淑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연구

—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

An Aspect of an Alienation
in Park Kyoung-Lee's Novel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現代文學專攻

金 鈴 美

金鈴美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年 2月 日

審査 委員 (인)

審査 委員 (인)

審査 委員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3
3.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5
II. 소외의 개념.....	9
1. 존재론적 소외.....	10
2. 사회 현상론적 소외.....	13
III. 박경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	18
1. 존재론적 소외에 의한 양상.....	18
(1) 불신세계와 성격의 의한 소외.....	18
(2) 사랑의 상실로 인한 소외.....	38
2. 사회 현상론적 소외에 의한 양상.....	54
(1) 사회적 냉대에 의한 소외.....	54
(2) 이념(이데올로기)에 의한 소외.....	70
IV. 박경리 단편에서의 소외의 의미.....	83
V. 결론.....	88
◆ 참고문헌.....	91
◆ ABSTRACT.....	96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연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전후인 1950년대는 폐허가 된 국토에서 극도의 가난과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고 윤리가 부재한 아노미 사회였다. 이러한 시대의 우리 문학은 외적인 면이나 내적인 면에서 당대의 상황을 모티프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는 전쟁의 메커니즘에 대한 저항과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강조된 시기였다. 이 때에 등장한 작가들은 “일단 반항과 거부의 정신”¹⁾을 주로 그렸다. 그 중에서 특히 박경리는 여성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반항과 거부의 정신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것은 불신세계와 냉대 받는 사회에 대한 반항과, 성격 문제와

실의 환경에서 오는 거부로 형상화된다.

박경리의 등단 초기의 작품(주로 단편)들은 여성이 겪는 경제적인 궁핍을 사회의 상황과 자기 내면의 문제로 결부시킴으로써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인물의 내면 심리묘사에 치중했던 박경리 소설들은 이후 다수의 중·장편에서 주제 및 기법의 다양화를 시도하면서 작품 영역의 확장과 변모

1) 전후에 등장한 “신세대의 문학은 일단 반항과 거부의 정신을 표방하였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성세대가 말하듯 그들이 현실 그 자체를 외면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손창섭의 모멸과 냉소, 김성한의 비판과 풍자, 장용학의 회의와 방황, 선우휘의 이념과 행동, 그것들은 모두 비판적 지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인간 정신의 표현이었다. (송하춘, 「1950년대 한국 소설의 형성」, 송하춘, 이남호편, 「1950년대 소설가들」, 나남, 1994, 29면

를 거듭해 왔다. 단편 소설에서 출발한 그의 작품 세계는 대하소설 『토지』에 와서 한국인의 삶의 총체를 제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단편에서부터 중·장편을 거쳐 『토지』에 이르기까지 박경리의 작품세계는 반항과 거부로 인해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설정된다. 박경리 문학의 기저를 이루는 소외의 다양한 요소들은 박경리 작품의 미학적 특질을 밝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조건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박경리 초기 소설에 고루 나타나고 있는 소외의 양상을 중심으로 작품 분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박경리의 단편 소설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7

박경리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그 단초(端初)가 되는 초기 소설 선행적으로 살펴봄으로 해서 박경리 소설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데 있다.

박경리는 『토지』²⁾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이다. 『토지』는 박경리 문학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1998년 한국 현대소설 50년사를 회고하는 평론가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토지』가 선정되었다.³⁾ 이같이 대작인 『토지』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토지』라는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1955년부터 1969년까지 13여 년에 걸쳐 수많은 단편과 중·장편을 발표한 작가였다. 그 중에서는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도 많이 있다.⁴⁾ 이러한 작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태가 되어 『토지』라는 대하 소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토

2) 「토지」는 단순히 농토라는 의미보다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써, 최씨가의 4대에 걸치는 융성과 쇠퇴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민족의 수난사를 형상화하고 있는 대하 소설이다.

3) 조선일보 24면, 2000년 2월 26일자. (문화면)

4) 「불신시대」, 「표류도」,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등은 당시 문단의 주목을 받던 역작이다.

지』가 수작인 만큼 그에 관한 연구도 무수히 많은 편이다.⁵⁾ 반면 『토지』 이전에 관한 연구는 『토지』에 비해 월등하게 적으며 특히 단편소설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같이 등한시된 초기 소설들을 소외를 통한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것은 초기소설 연구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박경리의 전체 작품을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박경리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토지』에 치중해 있고, 그 밖의 소설에 대한 연구들은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다. 미약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초기소설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외곤⁶⁾은 박경리 초기 소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작품은 작가의 경험적 세계와 밀착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세계를 소재로 한만큼 사회적 관점이 전면에서 드러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의지할 데라고는 눈 뚫고도 찾아볼 수 없는 ‘불신사회’라는 점이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쟁 미망인의 고통스런 삶을 작품에서 보여줌으로써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지만 작품이 지나치게 주인공의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의식에 집착하고 있는 나머지 그 근저에 놓인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경리 초기 소설의 특징을 지적한 김외곤의 논의는 시사점을 주기는 하나 전선에 직

5) 새미작가 총서 9에 보면 <박경리 연구목록>에서 토지론만 70편이고 그 외에도 솔출판사에서 토지 비평집이 4권까지 나왔다. (중복된 논문도 있음)

6) 김외곤, 「전후세대의 의식과 그 극복」, 작가세계, 1994, 가을호, 134-137면

접 참여하지 않는 작가로서는 후방에 있는 민중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생존’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의미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했을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호웅⁷⁾은 그녀의 상황은 세계의 폭력성에 강타 당해 정신과 육체가 함께 망가진 당대인들의 외로움과 무력함을 대변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우리 전후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말한 것이지 박경리의 문학적인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임중빈⁸⁾은 『시장과 전장』을 고찰하면서 신비스런 사념과 자연에의 낭만벽이라는 오류에도 불구하고 박경리가 전쟁이라는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극한 상황을 통하여 생활의 토대를 끝까지 수호하는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전후 문학의 고질인 데까당 기질을 스스로 극복하는데 선구적인 공헌을 했다고 논의하였다. 임중빈의 논의에서 지적된 자연에의 낭만벽은 작가가 추구하는 낭만적 삶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라는 주장에는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류보선⁹⁾은 작가가 살아온 삶의 내력이 많이 담겨져 있으며, 작가의 삶을 소설의 몸체로 삼고있되, 그것을 삶의 문제로 확대시키는데 충분히 성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경리의 초기 소설에서 삶에 희망이나 역사적 전망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초기 소설은 하나 같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맺거나 결단의 의지를 곱씹는 것으로 끝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류보선의 지적은 많은 부분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박경리 작품의 주인공들이 결단 의지를 곱씹는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7) 정호웅, 김윤식공저, 『한국소설사』, 예하, 1993, 340면

8) 임중빈, 『삶 그리고 긍정의 모험』, 문학춘추, 1966, 12월호

9) 류보선, 『비극에서 한으로, 운명에서 역사로』, 작가세계, 1994, 가을호, 30-32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채진홍¹⁰⁾은 인물 성격화의 단일성과 작품 구성의 단일성이 1950년대 박경리 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 삶의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지식 저변에서 샘솟는 자존심과 미모를 지닌 젊은 미망인의 삶이 그것이다. 각 작품마다 주변 환경도 비슷하게 설정되어 언뜻 보아 당대 그의 작품들이 서로 독립된 형태의 것이 아니라, 연작물 같을 정도라고 한다. 이 같은 인물 양상을 특징 지우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소외 문제이고, 다음 단계는 구성과 삶의 양상의 근거가 된 죽음의 심상과 생명 확인 문제라고 고찰하고 있다. 채진홍의 이러한 논의는 앞의 논의들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 1950년대 박경리 문학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진은 한마디로 말해 1950년대 박경리의 소설이 여성의 존엄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그 소외의 문제에 초점이 있었다면, 1960년대에 이르면서 그러한 소외의 원인을 널리 천착하면서 그 극복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진의 지적은 본고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으며 본고가 논의 하고자 한 논지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단평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박경리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소외된 삶이 당대의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미흡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된 기존의 연구들은 부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경리 소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본고는 소외의 양상이라는 구체적인 접근으로 박경리 문학의 미학적 특질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는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식을 일관된 관점에서 세부

10) 채진홍,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확인」, 송하춘, 이남호편, 「1950년대 소설가들」, 나남, 1994

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조윤아와 김현정, 송희경, 백지연 등의 석사 학위 논문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제기에서 거론하기로 하겠다.

3. 문제제기 및 연구 방법

박경리는 1927년에 경남 충무에서 출생하여 진주 고등여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1955년에 단편 「계산」이 『현대문학』에 추천된 데 이어 1956년에 「흑흑백백」이 현대문학에 추천 완료되어 문단에 데뷔하고 작품활동을 시작한다. 1957년에 단편 「불신시대」로 제3회 현대 문학 신인상을 수상했고, 1959년에 장편 「표류도」로 제3회 내성 문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1965년에는 「시장과 전장」으로 제2회 한국 여류 문학상을 수상했다.¹¹⁾

이 같은 수상 경력과 더불어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 단편 44편과 중·장편소설 20편, 대하소설 「토지」 그리고 수필집 6편, 기행문 1편, 시집 2권이 있으며, 최근에 발표한 산문 「다시 Q씨에게」¹²⁾와 시집 「우리들의 시간」 등 실로 많은 작품을 쓴 작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리에 대한 작품연구는 우리 한국 문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만큼 「토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초기 소설을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불과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박경리의 소설은 6.25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소설이라는 특징을 도출해 내는 수준에서 별로 진행되지 못하

11) 「박경리 연보」, 『한국 대표 문학전집』, 삼중당, 1973, 817면 참고

12) 현대문학, 2000, 3월호

다가 조윤아¹³⁾와 김현정¹⁴⁾, 송희경¹⁵⁾ 그리고 백지연¹⁶⁾에 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조윤아는 박경리의 소설에 주요 모티프로 수용되어 있는 죽음 모티프를 검출하여 그 특성을 기 논점으로 하였다. 김현정은 박경리 초기 단편 소설의 서사 구성원리와 그 공통점으로 드러난 자기 의식의 극대화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송희경은 1950년대 발표된 박경리 단편 소설의 특징인 자전적 요소의 소설화 경향을 살펴보고 자전적 요소가 가지는 한계와 작가의 극복 양상을 고찰하였다. 백지연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성인물이 사회 현실에 따른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응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정립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논의들은 부족한 박경리 초기소설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기여(寄與)를 하였다. 본 연구자 또한 박경리 소설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소외의 양상을 통해 초기소설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박경리에게 있어 소외란 그의 삶과 문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경리 자신의 비극적인 삶의 조건은 그의 일생을 소외된 삶 속에서 살게 하였다. 그것은 박경리의 운명도 그러했거니와 6.25 전쟁으로 인해 그 시대 자체도 그러했다. 이 같은 소외 의식은 박경리 문학 속에 그대로 용해(溶解)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박경리 작품 속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소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박경리의 초기 소설을 고찰하는데 있어 소외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박경리 소

13) 조윤아, 「박경리 소설의 죽음 모티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3

14) 김현정,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6

15) 송희경,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 연구」,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16) 백지연, 「박경리 초기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95

설 속에 나타난 소외의 본질은 무엇이며, 소외의 양상들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 II장에서는 소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철학적인 면에서의 소외의 개념과 사회학적인 면에서의 소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들을 존재론적 관점과 사회현상론적인 관점에서 고찰 하고자 한다.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첫째, 불신세계와 성격에 의한 소외이고, 둘째는 사랑의 상실로 인한 소외이다. 사회 현상론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냉대로 인해 소외 받는 경우와 이념으로 인해 소외되는 측면에서 『시장과 전장』의 하기훈을 중심으로 살피게 될 것이다. IV장에서는 박경리 단편에서의 소외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 본 후에, V장 결론에서는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II. 소외의 개념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외를 느끼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일 때도 있겠지만 주어진 환경이나 인간 관계에서 오는 소외가 많다. 소외라는 용어는 오늘날 보편화되어 익숙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소외가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외를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소외에 관한 논의의 방향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입장, 실존주의적 입장, 표현주의적 입장, 심리주의적 입장, 허무주의적 입장, 사회주의적 입장 등 많은 방향에서 소외가 언급되고 있다. 그런 만큼 소외란 용어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고 하겠다.

소외라는 용어는 19세기초에 “파히테와 헤겔이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마르크스와 루카치, 파펜하임, 아도르노, 프롬 등에 의해 진지한 논의가 거듭되었다”¹⁷⁾고 하며 소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라고 한다.¹⁸⁾

한편 우리 나라에서 소외에 대한 논의는 김주연¹⁹⁾과 정문길²⁰⁾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82년부터 허용되기 시작한 사회주의에 대한 번역서 들의 출판과 더불어 소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소외에 관한 “체계적 분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소외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접근”²¹⁾이라고 한다. 이것은 “세계가 두 진영으로

17) 김정자, 『소외의 서사학』, 태학사, 1998, 80면

18) 월터 카우만, 「소외에 대한 관심」, 정문길역, 『소외』, 문학과지성사, 1984, 21-26면

19) 김주연, 『현대 문화와 소외』, 현대 사상사, 1976

20)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지성사, 1978

양분되었을 때(2차대전후 ; 팔호필자)에야 마르크시즘과 실존주의가 소외론으로 공동의 기반을 모색했다”²²⁾고 한다. 이 두 분류 방식은 오늘날 소외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오현²³⁾에 의하면, 소외란 자기 동일성²⁴⁾의 결성(缺性)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인간 존재론적 소외론’과 ‘사회 현상론적 소외론’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신오현은 실존주의 입장과 사회학적 입장을 자기 동일성의 개념 안에 한데 아우른 셈이다.

1. 인간 존재론적 소외론

인간 존재론적 소외론은 헤겔식의 소외론에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소외론을 귀속시킨 것이다.

헤겔은 인간 주체가 자기 자신을 밖으로 대상화하여 그 대상화된 것이 독립적 존재로 되는 동시에, 본래적 자기라고 하는 인간 주체를 그 대상화된 것, 즉 객체에 빼앗겨서, 그것이 주체로 간주되어지는 결과 도리어 그것은 우리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소외적 타자로서, 우리 인간을 거꾸로 지배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고 하였다.²⁵⁾ 다시 말하면 이것은

21) 정문길, 「소외를 보는 시각」, 『소외』, 문학과지성사, 1984, 12면

22) 월터카우프만, 「소외에 대한 관심」, 정문길역음,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 21면

23) 신오현, 「소외 이론의 구조와 유형」, 정문길역음, 『소외』, 문학과지성사, 1984, 45-53면

24) 동일성 :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자기 고유의 지속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신오현, 앞의책, 47면)

25) 이 같은 논리에 대해 김종호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헤겔에게 있어서의 노동의 전개 과정은 실은 정신의 자각 과정

인간정신의 자각 과정의 서술로써, 정신이라는 절대적 실체가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면서, 주체는 인식체(認識體)로서 그것의 반대인 객체라고 하는 대상을 갖는데, 이와 같은 인식체와 그 대상의 관계를 헤겔은 소외의 관계라고 본다. 왜냐하면 인식체가 인식하는 대상을 가질 때 그 대상은 필연적으로 자기 아닌 타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헤겔의 소외는 자기이탈(自己離脫), 혹은 자기분리상태(自己分離狀態)를 가리킨다.²⁶⁾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자(터있음²⁷⁾)가 고유의 자기존재(있음)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타성화된 평균성과 일상성에 몰입해 있을 때를 소외로 본다. 이것은 주관과 객관의 분열의 결과로써 인간은 현실로부터 소외된다고 하겠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 자신의 실존을 ‘의명의 군중’²⁸⁾이라는 비본래적인 상태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모든 존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사물의 즉자(卽自)와 인간의 대자(對自)가 그것이다.²⁹⁾ 여기서 즉자는 대립 의식이 없

이라는 것이다.(김종호, 「실존과 소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 13-17면)

26) 박이문, 「실존주의 문학과 인간소외」, 김주연역, 「현대 문화와 소외」, 현대 사상사, 1976, 194면

27) 발터 비멜의 「하이데거」에서 보면 터있음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특정한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인간은 존재(있음)와의 연관(Bezug)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존재자로 관찰된다고 한다. (발터 비멜, 신상희 옮김, 「하이데거」, 1997, 한길사, 61면)

28) 하이데거는 ‘다수 속의 하나’라는 뜻을 가진 가장 비인격적이고 중립적인 말인 독일어의 대명사 man이라는 말로 존재 방식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타인이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아닌 세계, 의미를 상실한 세계의 성질을 말한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존재를 향해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역설을 한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 자기 자신을 향해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움직여야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것이다. (프리츠 파펜하임, 앞의 책, 27-29면)

는 상태인 대상을 말하고, 대자는 대응하는 자인 의식을 말한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객체로 사물로 보고 있다.

나의 입장, 즉 나의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남은 대상이다. 이것은 '나'라는 대자의 입장에서 볼 때 타인은 즉자이다. 반대로 남의 입장, 즉 타인의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의식과 대상은 양립할 수 없다. 의식(대자)은 어떤 대상(즉자)을 가짐으로써 존재한다.³⁰⁾ 여기서 의식은 나의 의식과 타인의 의식간의 괴리가 형성된다. 이 때 타인의 의식에 의해서 나의 의식이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소외이다. 즉 의식의 대상화되는 물화 현상이 소외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그 존재 자체 안에 소외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의식은 대상에 있어서만 의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 사상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그들은 모두 인간의 자아는 개인의 기본적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인간이 인간이면서 인간의 고유한 주체성을 상실하고 객체로 될 때 인간은 비인간화되어 물건에 가까워져 소외되는 것”³¹⁾이라고 할 수 있다.

29) 사르트르가 말하는 대자(對自)와 즉자(卽自)는 모든 경험이 전제되어 있는 두 가지 존재인 인간과 그 밖의 모든 것, 인식의 대상을 각기 두고 말하는 존재론적 개념이다. 물론 인식자로서의 인간은 의식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 존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의 대자는 인간의 의식을 가리킨다. 인간이 다른 모든 사물은 물론, 생물, 동물들과도 구별되는 것은 인간이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자는 의식을 갖지 않는 모든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 즉 그것 자체로서 충족된 존재이다. 다시 말해 그냥 존재로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돌, 산, 나무, 하늘, 책상, 강아지, 전쟁 등과 같은 사물, 혹은 현상 또는 상황, 사건 등을 의식한다. 그러한 한에서 그것들은 '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것들의 존재 양식은 있는 그대로 있다. (김화영, 『사르트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173면)

30) 김화영, 앞의책, 187면

31) 이선영, 「현대 소설과 인간소외」, 김주연역음, 「현대 문화와 소외」, 227면

이런 관점에서 문학 작품들을 보면, 이미 제도화된 기성 가치나 혹은 사회체제라는 규범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안주할 수 없는 인간, 그런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외로운 인간들을 보여준다. 이 같은 작품으로는 카프카의 『변신』, 사르트르의 『구토』, 까뮈의 『이방인』이라든지 손창섭의 작품들 그리고 이호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 사회 현상론적 소외론

사회 현상론적 소외는 사회학적 접근에 의한 것으로, 라틴어 권에서 처음에는 법률적인 용어로써 어떤 개인이 소유했던 토지나 가옥을 남에게 이양(移讓)하는 것을 뜻했다. 그리고 정신적 불안 상태와 연관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의학적인 면에서 정신력 즉 정신병과 관련하여 지각과 감각 능력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이해와 지각능력을 상실한 인간을 소외된 인간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영어권의 경우에는 신과 인간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점차 신학적 의미가 희미해지면서 이방인처럼 느끼는 과정, 또는 미움을 받게 되는 인간관계로 전락되는 과정을 묘사하게 되었다.³²⁾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소외라는 뜻으로 인간간의 친근하고 정다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지시하게 되었다 하겠다. 이 같은 인간관계의 상실이라는 뜻의 소외는 오늘날 사회구조 속의 본질적 특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르크스는 소외라는 개념을 경제적 과정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

32) 한완상, 「현대 사회와 인간소외」, 김주연역음, 「현대 문화와 소외」, 72-73면

학 이론에 도입되어 소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어떤 생산관계(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노동의 대상화를 소외로 여긴다. 이 같은 소외를 마르크스는 『경제학 철학수고』에서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³³⁾고 한다.

소외의 1형태는 노동 생산물로부터 노동자의 소외이다. 이것은 노동자가 노동의 생산물이나, 노동소재 같은 대상이 없으면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자본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된다고 할 수 있다.

소외의 2형태는 노동 그 자체로부터 소외이다. 이는 노동이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받기 위해 싫어도 할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외의 3형태는 유적 존재³⁴⁾로부터 인간의 소외이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되어 버린다. 즉 인간적 본질에서 인간이 소외된다는 것이다.

소외의 4형태에서는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소외를 말하고 있다. 이는 곧 인간 상호간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간 상호간의 대립이

33) 김종호, 『실존과 소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 19-32면

34) 벌이나 개미 같은 동물도 집을 만들기는 하나, 그 생산은 단지 본능적으로 자기나 새끼들의 필요에 움직여서 행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인간은 자기의 개인적인 육체적 욕구에서 자유로이 생산하고, 자기가 속하는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한다. 거기에는 인간의 유(類)로서의 결부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대상에 덤벼든가든가 도망친다든가 하는데, 그 경우 대상을 특정한 유(類)중의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적인 대상에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 인간은 대상에 작용할 때, 대상을 특정한 유에 속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포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상의 유로서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갈파할 수가 있어, 그것에 적합하도록 작용할 수가 있다. 즉 각 대상에 적합하는 '거동'을 할 수가 있다. (김종호, 앞의책, 22-23면)

아니라 생산 수단을 사유하고 있는 인간,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도가 소외의 원천이고, 재산이 없는 민중의 실업과 빈곤은 인간의 자기소외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시이맨은 소외의 양상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³⁵⁾

첫째는 그 자신의 행위가 개인적 사회적 보상이 생기도록 통제할 수 있는데 대한 낮은 기대감이라고 하는 ‘무력감’이다. 무력감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개인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므로 개인은 이를 어떻게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이 그것의 역동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의 진행을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사태나 사건에 대한 불가해(不可解)의 감각이라고 하는 ‘무의미성’이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은 너무나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단이 필요한데 대한 높은 기대감이라는 ‘무규범성’인데 이것은 아노미³⁶⁾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넷째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에 대한 개인의 거부를 나타내는 ‘가치상(價値上)의 고립’을 말한다. 즉 개인이 대중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35) 정문길, 앞의책, 217-226면

36) 아노미(anomie)는 (사회 생활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규범, 가치의 붕괴(결여), 사회적 무질서를 나타내는 무규범(無規範)이란 뜻이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급속도로 빨리 변하게 되면 사회 규범의 구속력이 약화되기 쉽다. 사회 규범이 약화되면 그 만큼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는 자제력이 상실되기 쉽다. 규범이 아주 약화되어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다섯째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라는 ‘자기소원(自己疏遠)이다. 이는 인간의 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와 어느 정도의 자아의 거부, 즉 그 자신과 그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간의 괴리를 말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거부 및 거절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포용(包容)이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이다.

이 같은 시이만의 여섯 가지 소외 양상 중에서 무력감, 무규범성(아노미) 그리고 자기소원(自己疏遠)의 소외 형태는 오늘날 사회학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겠다.

프롬의 경우를 보면,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낯선 사람인양 경험하는 경험 양식이다. 이를테면 소외된 인간은 그 자신으로부터 소원해진 나머지 스스로를 자기 세계의 중심, 자기 행동의 창조자로 느끼지 못하고 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주인이 되어 그는 이 주인을 복종하고 심지어 숭배까지 하게 된다. 소외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듯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마치 사물을 대하듯이 대하게 된다.”³⁷⁾고 한다. 자기 자신을 낯선 사람인양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는 양식이다. 인간이 창조한 오늘날의 이 거대한 사회 구조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업화³⁸⁾되

37) 신오현, 「소외 이론의 구조와 유형」, 정문길역, 『소외』, 문학과지성사, 1984, 3738면

38) 노동자는 고도로 분업화된 추상적 노동기능의 수행자로 전락했고, 기업가는 노동관리, 기업 관리에서 비인간적인 관료주의에 얽매이며, 자본가는 오직 문서를 통해서만 자신의 재산에 관계하고, 생산과 소비는 인간의 실질적인 수요와는 무관한 추상적 시장 메커니즘에 지배되며, 조작된 생산은 조작된 수요를 만들고 조작된 수요는 급기야 조작된 욕망을 낳게 된다. 심지어는 인간의 휴식과 취미생활까지 상업화되고 인간 관계는 추상적인 금전, 이해, 상품교환의 관계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 자신의 인격도 인격 시장의 상품으로

어 인간을 지배하고 소외가 만연된 사회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회관계 속에서 불만족, 타인과의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결핍을 불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소외일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문학작품들을 살펴보면, 졸라의 『돈』, 드라이저의 『자본가』, 하우프만의 『직공들』, 최인호의 『타인의 방』, 박태순의 『낮선 거리』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문학작품들이 철학적 입장과 사회학적인 입장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다만 철학적인 면에 비중이 있는 것과 사회학적인 면에 비중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분류한 것임을 지적해 둔다. 실제 작품들을 보면 철학적 입장과 사회학적 입장이 문학 작품 내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소외도 존재론적 입장과 사회 현상론적 입장이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존재론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면, 존재론적 원인에 의해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입장과 사회학적 입장을 포괄적으로 조망한 신오현의 소외에 대한 개념 정의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신오현이 주장한 ‘소외란 자기 동일성의 결성개념’이라는 정의를 근거로 작품 분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조작, 선전,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인간의 개성은 말살되고 창의성은 고갈되어 인간상품, 인간교환, 인간 시장의 근성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현대인의 의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정문길, 앞의책, 38면)

Ⅲ.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

1. 존재론적 소외에 의한 양상

(1) 불신세계와 성격에 의한 소외

6.25전쟁은 국토를 초토화했을 뿐만 아니라 인심도 황량하게 만들었다. 전후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작가 박경리는 삶의 위기에서 오는 인간의 소외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불신시대」를 보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부조리에 대해 자신의 체험을 소설화함으로써 사실적인 공감을 얻게 하고 있다.

“「불신시대」는 신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소재로 하여 씌어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흔히들 말하고 있는 사소설 계열에 속하는 작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략) 「암흑시대」는 아이를 홍제동 화장터에 갖다 버리고 돌아온 날부터 책상에 달라 붙어 쓴 것이고, 「불신시대」는 아이를 잃은 후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게 인간들을 휘감아오는 사회악과 형식화되면서 위선의 탈을 쓴 종교인과 인간 정신이 물체화되어 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쓴 것입니다.”³⁹⁾

작가는 이와 같이 자기 테두리 안에서 “서투른 그림쟁이가 자화상을 그

39) 박경리, 「Q씨에게」, 박경리문학전집16, 지식산업사, 1981, 116면. (사소설의 의의)

리듯이 그저 나를 그려본 것이”⁴⁰⁾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작품을 형상화하고 있다. 「불신시대」의 진영은 9.28 수복 전날 밤에 남편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의사의 무관심 때문에 아들을 잃게 된다.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소외된 인물이다. 진영은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 가다가 직장마저 실직을 한 형편이라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연한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서 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성당을 찾는다. 하지만 아들 “문수를 위하여 신을 뵈러 온 마당에서” 성당의 분위기에 싸이자 못하고 이방인처럼 느낀다. 단지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성당을 찾아 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동요되지 못하고 거리를 느끼는 것이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신발을 싸들고 가는 신자들의 모습에 눈이 따라 가는 것이었다”⁴¹⁾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 쪽에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지 못해 신발을 싸들고 가는 신자들의 모습에 진영의 시선이 집중된다.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감으라 해놓고 신 도둑질하더라. 그런 야유에찬 노래를 생각했다.” (중략)

“헤살꾼은 속삭인다.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아주 영영 없어진 것이다. 진영은 눈앞이 캄캄해 오는 것을 느낀다. 헤살꾼은 속삭인다. 칼끝으로 골을 짜개서 죽어버린 것이다. 무참하게 죽어버린 것이다. 진영은 눈앞에 시뻘건 불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을 본다. 헤살꾼은 자꾸만 자꾸만 속삭인다. 어둡고 침침한 명부(冥府)에서 압축한 듯한 목선 아이의 울음소리. 진영은 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⁴²⁾

40) 박경리, 박경리 당선소감, 「무제」, 현대문학 20호, 21면

41) 박경리, 「불신시대」, 『한국대표문학전집』 10, 삼중당, 1973, 765면

진영은 이렇게 미사도중에도 내내 분심(分心)이 생겼으며, 성가대 아이들의 노랫소리도 잡음처럼 들렸을 뿐만 아니라 봉헌 주머니를 보면서도 “풍각장이의 낡은 모자”를 생각한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종교에 의지해서 자신의 고통을 위로 받고자 하지만 진영의 의도적인 행동(아들을 위한다는)은 결국 위로 받지 못하고 자기와는 무관하게 생각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⁴³⁾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 역시 진영으로 하여금 세상을 불신하게 할뿐만 아니라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찬 세계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마저 잃게 한다.

진영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겨우 다 넣어온 계돈을 친척 아주머니에게 소롯이 떼이게 된다. 그래서 진영은 아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꺾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를 해서 빚만 뒤집어 쓴 줄 알았던 아주머니는 거액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댁에서 하숙을 하던 상배가 종교를 미끼삼아 그 아주머니 돈을 가로챈 것이다. 진영의 눈에 비친 불신의 세계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진영은 폐결핵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Y병원에서는 주사약을 삼분의 일로 속였고, S병원에서는 동네 건달이 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H병원에서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은 결국 병원 가는 것을 중단하게 된다.

“진영은 약국에서 스트랩토마이신 한 개를 사들었다. 내내 다

42) 박경리, 「불신시대」, 『한국대표문학전집』 10, 삼중당, 1973, 765면

43) 종교란 지식처럼 이론(머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신을 향한 믿음으로 선악을 권계(勸戒)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영은 신을 향한 믿음보다는 아들의 명복을 빈다는 목적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부정적인 면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외란 인간이 신과 멀어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니던 Y병원에는 아무래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산 것이다. 갈월동의 아주머니는 Y병원에 의사가 같은 신자니 믿고 다니라고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주사 분량인 한 병에서 겨우 삼분지 일만 놓아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안 이상 다시 갈 수는 없었다.

약병을 만지며 길 위에 한동안 서 있던 진영은 집 근처에 있는 S병원으로 들어갔다. 이웃이기 때문에 의사와 안면쫄은 있었다. 그러나 병원은 엉터리 병원이었다. 진영은 모든 것이 서툴러 보이는, 갓 데려다 놓은 듯한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쳐다보며 약병을 내밀었다. 진찰도 하지 않고 주사만 맞으러 오는 손님을 의사는 언제나 냉대한다. 그래서 진영은 애당초 의사를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환자를 진찰하고 있던 의사가 위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진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사가 아니었다. 건달이었던 것이다. 진짜 의사는 그 때야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안에서 분주히 나오더니 바쁘게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청진기를 든 건달은 진영의 눈살에 켜졌는지 우물쭈물 해치우더니 간호원에게 「페니실린 이 그람!」 하고 밖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⁴⁴⁾ (중략)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었던 몸을 끌고 H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 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나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44) 박경리, 앞의책, 768면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 약병들을 팔아 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⁴⁵⁾

이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진영은 무엇하나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한다. 진영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해야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소극적(병원 가는 것을 중단하는 정도 ; 팔호 필자)으로 반항하다가 결국 소외되고 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⁴⁶⁾을 뿐이다.

시주 받은 쌀을 팔고 가는 스님이나 아들의 영혼을 달래는 위패 앞에서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 가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스님의 탐욕 등을 보면서 진영은 사회에 대한 불신감만 더해간다.

일반인이나, 종교인이나, 인술(仁術)을 베풀어야 할 의사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 욕심만 채우며 자기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돈만 사랑하고 사람은 비인격화시키니 진영은 “의지할 데라고는 눈 닦고도 찾아볼 수”⁴⁷⁾가 없었다. “인간 정신이 물체화 되어 가는 현실”에서 진영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마지막으로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진영이 경험한 현실 세계는 진영으로서는 도저히 타협하며 살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절망감은 세상을 불신하게 만들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소외되게 하는 것이다.

「흑흑백백」의 혜숙 역시 6.25 때 집이 불에 타고 남편이 폭사하였다. 부산으로 어디로 모진 고생 끝에 휴전과 더불어 서울로 환도해서 겨우 취

45) 앞의책, 771면

46) 이상진, 「여성의 존엄과 소외」, 최유찬편, 『박경리』, 새미, 1998, 124면

47) 김외곤, 「전후 세대의 의식과 그 극복」, 작가세계, 1994, 가을호, 134면

직 자리를 얻게 되었다. 판자 벽에 썩은 함석 지붕 밑의 방 한 칸을 얻어 딸 경이와 어머니의 세 식구가 위태롭고 서글픈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실직을 하게 된다. 상부 사람이 추근 거리는게 더럽고, 향락의 대상으로 보인 것이 분하고 원통하다는 게 이유이다. 이 같은 혜숙의 결벽성을 인간 존재론적 소외론 에서 보자면 사회 체제라는 규범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힘든 성격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생활 기반 마저 두 달 전에 아주 잃어버리고 말았다. 실직을 한 것이다. 혜숙은 이렇게 궁해져도 도무지 기질만은 옛날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꼽고 더러우면 껍하니 침 뱉고 돌아서 버린다. 이러한 성질은 가난한 그를 더욱 가난하게 하였다. 이번에 직장을 그 만둔 원인도 역시 그의 결벽성 때문이다. 추근추근하게 구는 뱃대기에 기름이 끼인 상부 사람이 더럽고, 또한 향락의 대상으로 보인 것이 분하고 원통하다는 데서 사표를 내 던졌던 것이다.”⁴⁸⁾

이와 같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것을 인내하거나 극복하지 못한다. 직장에서 불쾌감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자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로 나타난다. 혜숙과 같이 결백한 양심으로만 살려고 하면, 살아가기가 힘이 들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부어오던 겹돈을 타게 되면 구멍가게라도 해 볼 생각이었지만, 계주가 돈을 가로채는 바람에 그것도 어렵게 되었다. 구걸을 하기 위해 어머니는 경이를 데리고 이모 댁으로 가 있는 실정이다.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혜숙은 무엇이든 해야했다. 생각다 못해 죽

48) 박경리, 「흑흑백백」,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19, 지식산업사, 1987, 51면

은 남편의 친구인 현선생에게 취직 자리를 부탁하게 된다. 모 여중의 경리를 보고 있는 현의 학교 교장은 어떤 사람인가?

“장교장과 오래간만에 이러한 밀회를 갖게 된 황금순은 옛날 장교장이 가르친 제자였고 현재는 어느 관리의 부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교장이 경영하는 모 여중의 자모이기도 한 사람이다.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이 이러한 밀회를 수차 거듭하게 되는 것도 늘그막에 한번 타오르는 정열이라고 간단히 본다면 그만이겠으나 그러나 장교장으로서는 이렇게 감쪽같이 저질렀던 전과(前科)가 한 두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도 역시 하나의 불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장교장은 잔뜩 물오른 장미 줄거리처럼 싱싱한 황금순을 던지시 바라보며 오래 간만의 밀회를 즐기려는 판인데 요리가 들어오자마자 금순은 얼굴빛이 파래지며 일어서는 것이었다. 장교장으로 부터 융통받은 삼십만원짜리 수표가 없어졌다는 것이다.”⁴⁹⁾

학교 돈을 횡령하여 외도를 일삼는 사람이 장교장이요. 그 뒤처리를 해주는 모사꾼이 현이다. 이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터라 현은 혜숙의 취직자리를 주선하게 된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혜숙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었다.

실직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 동료인 영민이 하고 외투를 맞추러 간 일이 있었는데 영민이는 밤색을 택했고 혜숙은 값이 만 환이 싸기 때문에 그런

49) 앞의 책, 47면

색으로 결정했다. 혜숙은 색깔이 좀 화려해서 망설이는데 영민이가 옷으로 보니 천으로 볼 때보다 그린 색이 더 멋있다고 바꾸자고 하였다. 혜숙은 계돈을 타게되면 영민이에게 만 환을 주기로 하고 바꿔 입게 되었다. 그러나 실직을 하고 계가 깨지게 되어 만 환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혜숙은 영민을 만날 적마다 외투를 도로 바꾸자고 한 것이다. 혜숙은 기어이 영민과 외투를 바꿔 입게 되는데, 그 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어렵사리 구한 가사 선생자리를 놓치게 된다.

“장교장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다가오고 있는 여성을 응시하는 것이었다. (중 략)

분명히 저 외투에 저 마후라는 그저께 그 중국 요리 집에서

- 울다가 나오던 여자의 인상적인 복장. 그것이 틀림없다.”50)

“ 혜숙의 침착하고 얌전한 태도에 접하자 장교장은 참 앙큼스런 계집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혜숙을 힐난하는 듯한 눈초리로 아래위로 훑어 본다. (중략)

「자네 누이라는 지금 온 미망인 말이요. 좀 감독이 불충분해. 내 눈이 장님이 아닌 이상 틀림없이 그 과부는 바람이 났어요. 미안하지만 현 선생 청은 거절이요」 51)

장교장은 젊은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는 인간이다. 교육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부패의 주역인 셈이다.

본인은 정작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파렴치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50) 앞의 책, 58면

51) 앞의 책, 59면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시선을 보낸다. 혜숙은 영민이 입었던 외투를 바꿔 입었던 탕으로 혼전관계로 인해 임신한 한 영민으로 오해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당 시대의 가부장적 사회의 차별적 제도로 인해 혜숙 뿐 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여성들이 겪는 소외의 조건이기도 하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인해 혜숙이 가사 선생 자리를 잃게 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혜숙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다. 어떤 이유에서도 향락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윤리적인 양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혜숙과, 장교장과 현 사이에 서로 이해 타산이 얹혀서 주선된 취직 자리는 무언가 공동의 세계를 갖을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취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교장의 성품이 미망인인 혜숙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줄 리가 만무(萬無)하며, 그런 이중 인격자인 장교장의 성품을 알았다면 혜숙 역시 그런 세계에서 적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해를 비롯한 여타의 요인으로 인해 혜숙은 소외의 카테고리에서 좌절하며 절망하게 된다.

「불신시대」와 「흑흑백백」에서는 작가 자신의 개인적 삶의 테두리 안에서 소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가정환경도 작가와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어, 홀어머니와 여주인공(그리고 아들이나 딸이 있음)의 틀을 갖고 있으며, 작가의 신변에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작품들이다.⁵²⁾ 이는 전후의 뿌리뽑힌 삶을 살아야 했던 작가의 소외된 개인의 생존 방식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⁵³⁾에 의하면 “성격은 인간의 성질을 결정하나, 행불행은 행동에 의한다”고 한다.

52) 「계산」, 「암흑시대」, 「영주와 고양이」, 「반딧불」 등도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53) 아리스토텔레스, 손명현역, 『시학』, 1991, 62면

성격⁵⁴⁾은 개인의 정서적 반응인 타고난 기질과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 수준이 합해져서 형성된다. 이러한 성격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결함이 있을 때는 소외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도」에서는 숙혜의 경계적이고 회피적인 성격 때문에 소외되며 결국엔 뜻하지 않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숙혜가 결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십 년 전, 열 여덟이 되던 해였다. 소위 대동아 전쟁이 말기에 이르렀을 무렵이다. 정신대니 뭐니 하는 바람에 딸 가진 부모의 마음도 한창 불안했었다. 숙혜는 남편된 사람과 관례적인 맞선을 한 번 보고 결혼을 했다. 그 시기의 정세가 그렇지 않았다 해도, 그때의 숙혜로서는 역시 그러한 순서를 밟아 결혼을 한데는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짙은 지방색(地方色)에 싸여 인습에 굳어진 홀어머니 밑에서 숙혜는 그러한 방식 이외의 일은 꿈과 같은 것이었고, 또 일면으로는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혼이 가져오는 생활감정의 파란이 숙혜에게는 쉬 왔다. 감수성이 예민한 숙혜는 생활을 동화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⁵⁵⁾

숙혜는 열 여덟 살에 관례적인 맞선을 한 번 보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 석연치 못한 결혼 생활에 대한 외면으로 숙

54) 김기호에 의하면 “성격이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개인의 전체적인 인상이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김기호, 「성격에 따른 여가 활동과 생활 만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9, 7면)

55) 박경리, 「전도」, 『박경리 단편선』, 서문문고, 1997, 205-206면

혜는 항상 책을 대하며 살다가 자식 경이⁵⁶⁾의 피아노 선생인 강순명을 만나, 둘은 사랑에 빠진다. 강순명에게 빠져있는 숙혜는 현재의 생활을 혐오하여 대담하게 이혼 요청을 한다. 이로 말미암아 구구한 낭설이 거리에 유포되고 숙혜의 어머니는 깊은 심화(心火) 속에서 죽어 버린다. 강순명의 단호한 태도를 기다렸던 숙혜는 순명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자 H읍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된다.

당시 사회의 여성들은 대부분 숙혜와 같은 순서를 밟아 결혼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에 묵묵히 순명(順命)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삶이 여성의 미덕이요 또한 현모양처였다. 결혼한 남편과의 생활이 좋건 싫건 한 번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시 사회의 인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혜는 “무서운 계율(기존의 윤리관 ; 팔호 필자)을 범”하므로 써 급기야 어머니 마저 율화병으로 죽게 한 것이다. 어머니를 죽게 하고 자기의 가정마저 파괴한 숙혜는 “김숙혜란 어느 여잔가 하며 손가락질을 할 것만 같았고, 당장에라도 참기 어려운 치욕의 언사와 조롱이 숙혜 얼굴위에 퍼부어질 것만 같이 느껴”(209면)져서 사람을 피하게 된다.

이것은 숙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이라기 보다는 강순명과 순수한 사랑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주변의 시선에 대한 도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경계적(警戒的)이고 회피적(回避的)인 태도”(203면)로, 스스로 격리되고 자신을 소외시킨다. 숙혜의 회피적인 태도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햇빛을 전연 모르는 어두침침한 그 방은, 마치 단절된 고도(孤

56) 「전도」에서는 자식 경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걸로 미루어 보아 여식으로 짐작된다.

島)처럼 숙혜에게 평화로움을 주었다. 그것은 안집과 격리된 방의 위치 때문이지만..... 아뭇튼 현상 유지를 바라는 마음이 좀 강했다.”⁵⁷⁾

숙혜는 은행 내에서 좀 특이한 존재다. 다른 여행원들보다 나이 많은 것도 그랬지만 그보다 성질이 달랐다. 언제나 경계적이고 회피적인 태도였다. 같은 여자 동료하고 사귀는 일도 없었다. 그러한 태도는 직장 밖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거리를 거닐 때나 혹은 버스, 전차 속에서 어떠한 동료를 만나도 숙혜는 아주 못 본 척했다. 알은체하는 상대방을 묵살해 버리는 그의 태도는 상당히 완강한 것이었다. 마치 그것은 쇠뿔치와도 같이 단단한 간격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처럼 접근해 올 수 없게 만들었다.”⁵⁸⁾

이와 같이 숙혜는 안집과 격리된 방의 위치 때문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둡침침한 방에서 더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다. 직장에서도 “간이 얼어붙는 듯한 도서실에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도서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마루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즈뽕 가랑이를 타고 뱃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없는 도서실이 숙혜에게는 더 편안했던 것이다. 자신의 과거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어떠한 질타의 시선도 거부한 숙혜는 쇠뿔치처럼 단단한 간격으로 상대방이 접근해 올 수 없게 만든다. 그만큼 숙혜는 강순명과의 사랑을 “절대적인 목숨이 존재하는 이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직원 ‘윤’에 의해

57) 앞의책, 197면

58) 앞의책, 207면

숙혜의 과거가 알려지게 되고 숙혜는 “경멸”과 “모욕”의 시선이 두려워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 두 달 후면 방 값을 다시 치러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도 막연했지만 “자기의 과거를 말거리로 삼는 외부 사회에는 죽어도 나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숙혜는 떳떳하지 못한 과거로 인해 경계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이 된다. 숙혜가 은행을 그만두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주인집 아주머니의 대접도 달라지게 된다. 김선생이라 부르던 것이 김씨로 바뀌게 되고 공녀들과 함께 방을 쓰며 아주머니의 일을 돕는 주종관계로 바뀐다. 고깃덩어리 같이 살찐 주인 사나이라도 숙혜가 은행에 나가고 있을 적에는 감히 염도 내볼 수 없는 그러한 여자로 생각했지만 공녀와 다름없는 처지에 있고 보니 태도가 달라진다. 작은집뿐만 아니라 큰집도 있어 현재의 아주머니 댁은 무슨집에 속하는지 모를 정도로 사생활이 복잡한 주인 사나이의 야릇한 시선과 격에 맞지 않는 친절은 숙혜를 수척하게 한다. 주인 사나이의 이 같은 시선을 느낄 때마다 숙혜는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다른 일자리를 구해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숙혜에게 있어서는 강순명과의 관계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선 냉소적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숙혜의 처지이고 보니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고민을 말거리로 삼는 외부 사회에 대해 비천하게 굽히는 것이요 굴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숙혜의 태도에 대해 채진홍⁵⁹⁾은 “숙혜의 인간 존엄에 대한 집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숙혜는 스스로 자기 품위를 높여서 범할 수 없게 하기

59) 채진홍, 「인간존엄과 생명의 확인」, 송하춘·이남호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248면

위해서 경계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숙혜의 성격은 “소외를 가져오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재난을 불러들인”⁶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나이는 어쩐지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니 광포한 피가 지글지글 끓어오른다. 숙혜가 서릿발 같이 차면 찰수록 형용키 어려운 미움이 치솟는다. 그리고 숙혜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수록 짓밟고 더럽혀 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사나이는 영악한 짐승처럼 시끄덕 거리고 있더니 눈에 불을 켜고 손을 뻗친다.

책상 위의 가위를 잡는 것이었다.”⁶¹⁾

숙혜의 처지가 주종관계로 바뀌면서 주인 사나이는 숙혜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 주인 아주머니가 공녀 문경댁을 찾으러 경상도로 내려간 틈을 타서 숙혜를 겁탈하려 한 것이다. 숙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난다. 술에 취한 주인 사나이는 숙혜의 서릿발같이 차가운 태도에 접하자 “뭐가 뭘지 건잡을 수 없는 이상한 힘에 밀려” 수술용 가위로 숙혜를 마구 난자하게 된다.

숙혜는 자기를 향한 질타의 시선이 없고, 자기의 노력만이 필요한 곳이라면 식모라도 공녀라도 좋다는 생각에 주인집 일은 거들게 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60) 김현정,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6, 248면

61) 박경리, 「전도」, 앞의책, 229면

「쌍두아」는 남성인물의 자기 도취적인 경우와 여성 인물의 열등감이 서로 대칭 되면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소외라는 같은 뿌리에서 여자와 남자의 이질(異質)”⁶²⁾을 다룬 것이라고 한다.

「쌍두아」의 종서는 번역 일을 하면서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이지만 그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종서 친구인 병호는 종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 H고등학교에 취직 자리를 알선해 주려 하지만 종서는 거절한다. 그렇게 살아도 방세 밀린 일 없고, 연탄 떨어진 일 없지만 아주 가끔 밥값이 떨어질 때만 좀 처량하다고 한다. 병호는 종서에게 진작 머리 깎고 탁발이나 하지 그랬냐고 핀잔을 주지만, 그의 성격을 아는 터라 농담반 진담반으로 넘긴다. 종서는 누구에게도 매이는 것을 싫어한다. 누추한 판잣집의 단칸방에 살지만 그 곳에서 번역 일을 함으로써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나는 혼자야, 하지만 나는 대화를 갖고 있단 말이야. 자유스런, 무한히 자유스런, 내가 번역한 작품은 모두 하나 하나가 주옥이다. 왜? 나는 혼자서 원작자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마음을 나누며 외롭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다 알 수 있지. 그 작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했는가를, 곤두박질을 하며 고통을 받는 모습을, 기뻐서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고 은밀하고 교활한 미소를 띠는 얼굴을, 낱낱이 볼 수 있거든 하나도 기겁하질 않아.

거리에 나가보아. 그리고 사람을 만나보아. 그런 진짜 얼굴이 있는가. 꺾이고 꺾여서 다듬어진 얼굴이, 꼭 같은 얼굴이 꼭

62) 박경리, 「쌍두아」, 『현대문학』, 1967, 5, 16면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참말을 하면 모두 내 얼굴을 쳐다보고 우습다는 거야. 유치하다는 거야. 저 건물의 평수는 얼마고 도시계획에 헐리지 않는 거구, 외국산 양복지의 종류 이름이 무엇 무엇이고, 그것이 참말이라는 거지.

그래도 내가 참말을 하면, 뭔데 너가 그러냐는 거지. 뭔데 말이야. 하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야. 판잣집 셋방살이의 부잣집 외아들의 비참한 말로, 웃음거리의 인간에 불과해. 그들이 그러는 거야. 영해도 그러고.”⁶³⁾

종서는 판잣집의 침침하고 어두운 방에서 번역 일을 할 때에 자유를 느낀다. 그는 혼자서 원작자하고 대면을 할 때만 무한히 자유롭고 외롭지 않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웬지 거북하고 낯선 사람처럼 느낀다. 처음에 종서는 외로워서 어느 다방 레지와 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거북함을 느낀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자기 아닌 타인이 앉아 있어 소리를 질러 쫓아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방안의 살림살이인 “양복장, 찬장, 경대, 그런 것 속에 드러누우면 영원히 밀폐되어 다시는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착각”이 든다. 마치 유희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종서는 여자가 무식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에 달아난다. 그리고 몇 해를 살다가 정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역시 거북함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거북하고 낯선 사람하고 내가 마주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야. 뭐라 했으면 좋을까? 역시 낯선 사람하고 함께 식

63) 박경리, 「쌍두아」, 『박경리 단편선』, 서문문고, 1997, 103면

사를 하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체한 것처럼 골이 멍하고
아파 오는, 그 견딜 수 없는 것은 의식이기보다는 본능, 아니
생리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어.”⁶⁴⁾

종서는 정아에게서도 달아난다. 종서의 이 같은 현실에 대한 거부는 소
외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현실과 융화 할 수 없음으로 해서 종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판잣집 단칸방에서의 번역 일
이 그것이다. 취직자리의 거부나 가정을 꾸미는 것에 대한 종서의 거부
행위는, 그 원인이 삼촌내외에게서 비롯된다.

군대에서 살아서 돌아왔을 적에 숙모의 미소는 뒤틀려 있었다.
실망은 간신히 감추어졌으나, 그 대신 증오가 사촌형을 보려고
온 자식들에게 폭발되었던 것이다.

‘내가 죽어 돌아오지 말아야 했을 것을’

보기 싫게 일그러진 숙모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종서는 생각했
다.

“다행이다. 너마저 어떻게 됐더라면 저승 가서 형님 보는 낮
이 없지. 하하 핫 핫.....”

몸을 흔들고 웃었으나 삼촌의 웃음은 허했다.

‘내가 죽어 돌아오지 말아야 했을 것을’

종서는 조용하던 옛날 집을 점령하고 있는 삼촌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고, 그 타인들을 눈여겨보며 눈물을
흘렸다.”⁶⁵⁾

64) 앞의책, 105-106면

65) 박경리, 앞의책, 89-90면

종서는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전쟁이 끝나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삼촌 내외의 실망하고 증오하는 얼굴에서 재산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것은 종서가 매일 매일 죽음을 보아야 했고 죽음과 부딪혀야 했던 일상생활보다 더 큰 염오를 갖게 한다. 종서는 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삼촌에게 대항해 다시 재산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자기의 정열을 바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삼촌이 정리해 주는 얼마간의 재산을 가지고 혼자서 생활을 한다. 이로 인하여 종서는 물질적 현실에 대해 담을 쌓게 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타인임을 의식하고 낮설음을 느낀다. 여자의 생소한 살빛에서 숙모의 뒤틀린 미소를 느끼게 되고, 건성으로 인사하는 출판사 사람들과 종서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손톱을 물어뜯으며 판전을 펴고 있던 소설 쓴다는 사람들 그리고 장소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취새끼처럼 되바라진 사람들”에게서 삼촌의 허한 웃음을 인식한다. 종서의 이러한 태도는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타난다.

머리를 걷어올리는 삼촌 손가락의 인장 반지가 번득 빛났다.
거무튀튀한 얼굴의 사나이도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⁶⁶⁾

정아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빙빙 돌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런데 숙모가 내 앞에서 당황하여 반지를 돌려버린 일이 한 번 있었지. 돌아가신 어머니의 다이아 반지였던 거야. 정아가 반지를 돌릴 때마다 나는 숙모의 얼굴을 생각해 보는 거야.”⁶⁷⁾

66) 앞의책, 90면

67) 앞의책, 105면

이와 같이 종서의 대인(對人) 기피증은 삼촌 내외의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서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늘 삼촌 내외를 의식하고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북한 시선을 피해, 자신만의 세계인 단칸방의 번역 일에서 만족감과 자유를 느낀다. 그것만이 물질적인 현실과 낯설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요 동시에 종서 자신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종서는 삼촌 내외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대인관계를 절연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람을 기피하는 성격으로 굳어지고 종서 자신을 외롭게 만들며, 자신을 소외의 수렁으로 함몰시키고 만다.

종서와 영혜는 어린 시절 소꿉 친구이다. 둘은 17 년만에 우연히 만난다. 그 후부터 종서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영혜집에 들러서 커피나 저녁을 대접받곤 한다.

그들은 여러 번 만났지만 서로가 자기 신변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 자신의 사정이 드러날까 봐 되도록 피하는 것이다. 영혜는 종서를 만날 때마다 곧잘 웃는다. 그것은 습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론 발광적인 느낌조차 들게 한다. 종서는 혼자 사는 여자의 히스테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차츰차츰 자신들의 사정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된다.

어느 날 영혜는 종서의 집을 찾아온다. 누구든 남자라면 한 번은 고백해야 될 것 같다면서 원죄를 고해하려 왔다는 것이다.

비밀이 있어 숨긴다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그리고 그것은 끝이 없는 거야. 저지른 죄를 털어놓으면 끝이 나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무엇을 저질렀단 말이야? 나는 아무

것도 저지르지 않았어. 처음에 죄인을 우리 엄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엄마도 나처럼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어. 다음에는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죄인은 형벌밖에 서 있었으니, 분명히 조물주의 실순데 그는 실수를 자인하기는커녕 나에게만 속죄하기를 바라는 거야. 불구는 내 죄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것을 숨기고 비밀로 하고, 그 비밀로 하여 나는 인간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단 말이야. 내 성질은 살인자처럼 거칠어지고 열리지도 않는 감옥을 주먹으로 치다가 나는 저승에서 죄를 졌다 하고 주저앉는 거야. 정말 외로운 세월이었어. 오욕에 가득 찬 하루하루가 갔던 거야.“68)

영혜는 불구의 몸을 숨기며 그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한스러운 심정을 털어놓으며 “반죽이 잘못되어 달라붙은 것”같은 한쪽의 큰 귀를 종서에게 보여준다. 영혜는 자기가 불구의 귀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남자가 접근해올 때마다 도망을 친다. 더러는 끌리는 남자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무서워서 달아난다. 불구라는 열등감으로 인해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난 것이다. 세상에는 영혜보다 더 장애가 심한 사람도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영혜는 자신이 불구라는 강박관념의 세계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세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영혜는 기형적인 귀를 가리기 위해 늘 단발머리를 하고 다녔으며,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남성에게는 자신이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68) 앞의책, 110-111면

말로 상대방을 멀리하곤 한다. 여성의 외모가 중요시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불구의 귀 때문에 사랑하는 남성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영혜는 이것을 숨기고 떠나는 것이다. 이것은 영혜가 외부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지나친 자기 비하로 자신의 본능적 욕구나 감정을 감추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남들 같으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불구의 귀는 영혜같은 성격의 여성에게는 극복되어질 수 없는 소외의 요건이기도 하다. 그만큼 영혜에게 있어서는 한쪽귀의 불구라는 사실이 고통이요 명예였던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혜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고뇌와 비탄에 빠져 결국 자살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영혜의 자살은 불구라는 자신의 존재를 의지로 극복시키지 못하고 방황과 좌절로 끝맺을 수밖에 없는 영혜의 폐쇄적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라 하겠다.

(2) 사랑의 상실로 인한 소외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대중 가요나 TV드라마 또는 영화 등을 통해서 사랑⁶⁹⁾에 관한 수많은 얘기들을 접하며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사랑 얘기만큼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일도 또한 없을 것이다. 행복한 사랑 이야기는 행복하니까 재미있고, 불행한 사랑 이야기는 연민의 정을 느껴 재미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사랑이야기 보다는 불행한 사랑 이야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불행 너머에 있는 어떤 충만

69) ‘사랑’이라는 말은 본래 ‘사로잡다’ 혹은 ‘사로잡히다’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안드레아스, 김영락 옮김, 『참다운 사랑의 기술과 허튼 사랑의 질책』, 범우사, 1997, 14면)

된 세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것이다. 사랑에 대한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세계,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동경한다. 박경리 역시 ‘사랑의 순수’한 세계를 동경하는 작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경리 작품의 인물들은 행복한 사랑보다는 불행한 사랑을 더 많이 한다.

「벽지」의 헤인은 ‘비정상성’에 의해 태어난 인물이다. 헤인의 아버지가 일본 유학 시절에 같은 유학생이었던 헤인의 어머니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된다. 그로 인해 헤인이 세상에 태어 났지만 헤인의 아버지는 이미 처자가 있는 몸이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이 있다. 사랑이란 때로는 윤리도 초월한다. 유학 시절에야 별 제약 없이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었지만, 귀국 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헤인의 아버지가 본 부인과 헤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감당(勘當)을 못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헤인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헤인의 아버지 마음속에는 늘 헤인의 어머니가 있었다. 헤인의 눈동자 속에서 아버지는 죽어버린 헤인의 어머니의 그림자를 찾으려고 했고, 본댁의 어머니는 그러한 기색을 느낄 때마다 헤인을 가로막으며 울어야 했다. 헤인 아버지의 이 같은 행동은 어머니와 헤인에게 곱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한다. “이러한 부자연스런 환경 속”에서 자란 헤인은 두 살 위인 이복 언니 숙인의 애인 병구를 짝 사랑한다.

헤인은 “한 남자를 두고 서로가 불행했던 부모들의 운명을 그대로 물려 받은 것을 생각”하고 몸을 떤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란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와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랑의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헤인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환경에 대한 결핍을 안고 있는 사람에겐 더욱 그러하다. 언니의 애인인 병구의 “웃음이 얼굴 가득히 고일적 마다 헤인은 인간에 대한 슬픈 향

수를”느낀다. 겉으로 표현할 수도 표현해서도 안 되는 처지, 헤인에게 있어서는 감정의 억제만이 숙명이었다. 사람의 욕망이란 제약을 받을수록 그에 대한 집념이 강해지는 것처럼 헤인의 병구에 대한 사랑은 그 제약만큼이나 강렬하게 자리한다.

6.25전쟁이 나면서부터 헤인의 언니 “숙인은 아주 철저한 코뮤니스트였다는 것이 드러나게”된다. 헤인은 감상적인 성격인데 비해 숙인은 “투철하게 논리적인 기질을 타고난” 인물이다. 고종 사촌인 영화는 당시 신혼이었기 때문에 군무(軍務)에 종사하던 영화의 남편은, 영화를 두고 떠나지 못해 낙오되어 공산군에게 처형된다. 쓰러져 울고 있는 영화를 향한 숙인의 시선은 몹시도 차갑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⁷⁰⁾

철저한 코뮤니스트였던 숙인은 사촌 동생 영화의 남편이 처형당한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 할 만큼 이념에 맹목적이다. 숙인은 북에서 온 박이라는 사나리와 맹렬한 활동을 한다. 공동의 이념을 위해 박이라는 사나리와 동지적인 한계마저 넘어버린 숙인은 사랑하던 병구를 과감히 버리고 9.28수복 때 북으로 가고 만다.

6.25전쟁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고 헤인의 가정도 풍비박산(風飛雹散)이 난다.

헤인의 집에서는 숙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헤인에게 관대해 지려고 괴로워하던 윤씨부인과 역시 이북 동생인 영인

70) 박경리, 「벽지」,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19, 지식산업사, 1987, 217면

(英仁)은 국군이 입성하는 전야 포탄에 죽어버렸고, 그 후 피난 간 부산에서 아버지인 강상호씨는 뇌일혈로 세상을 떠났다. 헤인은 이러한 상실의 연속 속에서 생모의 자살로부터 이미 자기의 운명 속에 인내와 고독이 있는 것을 느꼈다. 헤인은 피난 간 부산에서 병구가 아주 술에 날이 샌다는 소문을 바람결에 들었다. 그러나 헤인은 눈이 빗났을 뿐 그를 찾지 아니했다.”⁷¹⁾

전쟁은 불행과 파국 속에서 죽음과 상실의 고통이나, 정서적으로 손실된 상황과 조건을 만든다. 당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상실의 고통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다. 헤인 역시 가족을 모두 잃고 오로지 홀로 남게 된다. 헤인은 자신의 운명이 인내와 고독으로 점철(點綴)되어 있는 소외된 삶을 의식한다. 피난지에서 병구는 숙인의 상실로 인해 술로 나날을 보내고, 이것을 안 헤인은 그를 찾지 않는다. 언니 숙인은 북으로 가버렸지만 병구의 마음속에는 숙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구를 향한 헤인의 감정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자기 혼자만의 심리상태이므로 괴로움만 축적(蓄積)될 뿐이다.

헤인은 전쟁이 끝난 어느 날 혼잡한 명동 거리에서 병구를 보게 된다. 병구와의 만남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었지만 막상 기회가 주어지자 헤인은 스스로 포기하고 만다. 병구가 헤인을 알아보기 전에 헤인이 먼저 피해 버렸기 때문이다. 헤인은 그런 기회가 다시 온다고 해도 자기 마음과는 상반(相反)되는 행동을 하게 될 자기 자신을 슬퍼한다. 병구를 향한 헤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마음 몰라주는 병구를 외면

71) 앞의책, 219면

하기 위해 헤인은 ‘이중의식(二重意識)’이 표상(表象)된다.

어떤 사람의 인상이나 분위기를 보면 그가 살아온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밝은 표정인가, 그늘진 표정인가, 가식이 있는 표정인가, 거짓 없는 표정인가에 따라 그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헤인은 늘 쓸쓸해 보인다. 그가 살아온 삶이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었던 만큼 헤인의 모습은 항상 쓸쓸해 보인다.

명동(明洞) 어구에서 양장점을 하고 있는 헤인은 운명처럼 병구를 만난다. 헤인은 병구에 대한 자기 감정이 기계화되어 있는 건 아닌지 자신에 대한 심한 반역을 느낀다. 세월이 흘렀지만 헤인의 병구에 대한 감정은 변함이 없다.

“처가 있지요. 나도 결혼을 했답니다. 아이도 하나 있고, 불쌍한 여자지요. 처 말입니다.”

“술 취한 말씀이군요.”

헤인은 그런 말이 듣기가 싫었다.⁷²⁾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병구. 이제는 얼마든지 병구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병구는 결혼을 했다고 한다. 헤인은 그 말이 듣기가 싫었다. 아니 그 같은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병구와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헤인은 자신이 억제하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분출되는 것을 느낀다.

나직이 부른다. 헤인은 머리 속이 아득해움을 느낀다. 병구의

72) 앞의 책, 222-223면

목소리였다.⁷³⁾

따라 일어선 헤인과 병구의 눈이 부딪친다.

헤인은 순간 두려움이 자기 눈동자 속에 확 깔려지는 것을 느낀다. 모든 감정이 눈동자에 모여서 격렬하게 전율한다.”⁷⁴⁾

헤인은 병구가 지닌 분위기가 흐느껴질 정도로 자신에게 전하여 오는 것을 느낀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을 느끼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⁷⁵⁾

헤인의 눈에는 병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아까 양장점에서 만지던 빨간 옷감이 펄럭이고 있었다.”⁷⁶⁾

병구가 헤인을 나직이 불렀을 때 헤인은 머릿속이 아득해 움을 느끼고, 병구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헤인의 감정은 격렬하게 전율한다. 그러나 헤인은 병구의 감정이 자기를 향해 있음을 알았을 때, 승리감이나 행복감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힌다. 병구의 마음이 숙인으로부터 헤인에게로 돌아서긴 했지만 병구는 이미 처자가 있는 몸이다. 헤인과 병구는 서로가 마음과 행동이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병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헤인은 영화가 있는 파리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밤마다 병구를 기다린다. 헤인의 가슴

73) 앞의책, 221면

74) 앞의책, 223면

75) 앞의책, 224면

76) 앞의책, 226면

속에서는 끝없이 병구를 갈망하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를 떠나야만 하는 '이중의식'이 표출된다. 운명은 해후(邂逅) 만이었지만, 그 밖에는 해인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해인은 병구가 없는 곳으로 간다.

해인은 병구의 상실로 인한 자기 마음의 벽지를 개간하기 위해 “파리”라는 벽지로 떠나게 된 것이다.

「반딧불」은 상실의 이중 구조로 소외된 삶이 나타난다.

하나는 주영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주영이 사랑하는 학수를 버림으로써 상실하는 것이다.

주영은 고향을 싫어한다. 고향에 돌아오면 으레껏 거리에서 한 두 번을 마주치는 피동피동하게 살찐 아버지 꼴이 보기 싫었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는 오랫동안 떳떳하지 못한 인종(忍從)의 생활을 해 온 고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방인처럼 모두 낮이 설어서” 소외감을 느낀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홀어머니와 근근히 살아가는 생활. 어머니는 “그 어질고 어수룩한 천성 때문에 남의 꾀에 빠져 개가(改嫁)를 잘못하여 한 달도 못살고” 도망쳐 온 고향. “그 후 십여 년 동안 한결같이 두메를 찾아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해온 어머니”였다.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고향이건만 주영에게는 결코 아름다운 고향이 되지 못한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장사를 나가면 언덕 위의 외딴집에서 “해가 깜박 진 후”까지 혼자서 엄마를 기다려야 했다. 엄마를 기다리다 지친 날이면 주영은 엄마가 죽었는지, 도망을 가버렸는지 하는 불안한 생각에 애를 태운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엄마에게 주영은 반가움보다는 안도감에 고집스런 투정을 했고, 엄마는 투정을 막는 방법으로 치마끈으로 목을 매는 시늉을 했다. 이 같은 연극은 때때로 일어났으며, 주영은 “엄마가 도망가리라는 공포 속에서

자라게” 된다. 이처럼 아버지의 상실은 주영의 모녀에게 위태롭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주영이가 과년해지고 대학을 다니게 되자 아버지는 주판 속으로 주영이 몰래 다소의 원조를 한다. 한 고향에 살면서도 이십여 년 동안이나 모르고 지내던 아버지가 거들떠보는 것에 대해 어머니는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나 주영은 불안했던 어린 시절의 아린 상처가 너무 깊어 결코 마음의 매듭을 풀지 못한다.

주영은 어머니에게도 쌀쌀맞고 냉담하게 대한다. 고집이 세고 기질이 강한 주영은 어머니에게 냉담하고 통명스럽게 대하므로 써 언제나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이구 아가! 이게 웬일인고.”

물동이를 팽개치며 어머니는 울부짖는다. 그리고 자그마한 몸이 날씬하게 주영을 안으려고 발돋음을 한다. 주영은 그러는 어머니를 밀어내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마음이 벅차 오르면 벅차 오를수록 냉랭하게 식어 버리는 주영의 태도인 것이다. 가장(家長)처럼 굳어버린 표정에는 아무런 모녀간의 정애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사실 주영은 어릴 적부터 이 집에 있어서는 호주격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차라리 해일(海溢) 같은 감정이 어머니를 대함으로써 싸늘하게 식어 버리는 것인지도 모른다.”⁷⁷⁾

위의 인용문은 주영이가 대학을 다니다 폐를 앓게 되어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향으로 내려 왔을 때 어머니가 맞이하는 부분이다. 갑작스럽게 집에

77) 박경리, 「반딧불」, 『박경리 단편선』, 앞의책, 148면

은 주영을 보고 어머니는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주영을 안으려고 발돋움
을 하지만, 주영은 반갑게 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를 밀어내고 방으
로 들어가 버린다. “순하기 때문에 항상 비굴하게만 보여지는 어머니”가
주영에게는 한없이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몹시도 “미운 존
재”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주영의 마음속에는 좀 더 떳떳하고 현명
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늘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벅차 오를수록 해일 같은 감정은 어머
니를 대함으로써 오히려 싸늘하게 식어 버리는 것이다.

방학이 되어 주영은 보고 싶었던 학수와 만나게 된다. 감정의 변화 없이
항상 부드러운 학수의 목소리. 언제나 외로웠던 주영이가 “그 황량한 세
월 속에서 만난 사람”이 학수이다. 주영은 학수를 만남으로써 “온갖 트집
과 괴로움이 말끔히 가셔진 마음”을 느낀다. 주영이 자기 설움에 겨워 우
는 날에는 학수는 언제나 주영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포근히 안아 주곤
했다. 주영은 학수의 어깨 위에 기대는 순간에 이 같은 순간이 “유성(流
星) 마냥 사라질 것만” 같은 불안함을 느낀다.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온
주영은 학수를 만나는 행복한 순간에 이러한 행복이 깨어질 것만 같고,
자기가 폐결핵으로 죽을 것만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다. 학수 또한
주영과 떨어져 있는 동안 불안을 느낀다.

“우리들은 빨리 결혼을 해야 할게요, 나도 불안해 집니다. 떨
어져 있는 동안에 주영이가 없어질 것만 같아서, 아마 몸이 성
치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깊은 애정이 서려 있는 말이다.

“그런데 집에서 까닭을 부리니..... 그것쯤이야 문제없지만 돈

을 안 줄 거요.

이번에는 서울 가서 강사 자리라도 구해야겠어.”

학수의 말을 듣고 있는 주영은 자기라는 존재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예기하지 않았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의 차이에서 학수의 애정이 동정으로 조금이라도 변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⁷⁸⁾

주영과 학수의 막연한 불안감은 그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예감이었는지도 모른다. 학수는 집안이 매우 좋고 경제적으로도 펍 윤택한 생활을 한다. 학수의 집안에서는 주영의 좋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주영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영과 결혼하려고 한다. 주영은 불행한 자기 처지에 대해 비참함을 느낀다. 학수와의 “애정의 순수”를 위해 주영은 동등한 위치에 있고 싶었다. 그러나 학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치자 주영은 학수의 애정이 우월감에서 오는 동정으로 바뀔까봐 의심을 하게된다. 주영은 “윤선생, 댁에서 원하는 분과 결혼하세요.”라고 하며 거칠게 학수를 뿌리치고 돌아선다. 학수의 진실된 사랑을 아는 터라 주영은 가슴이 지글지글 타는 듯이 괴로움을 느낀다. 가난하고 환경이 좋지 못한 주영의 심한 열등감은 부모님의 반대를 초월할 자신이 없었고, 자기 환경으로 인해 누구 앞에서도 굽히고 싶지가 않았다. 몇 날 밤을 학수가 찾아와 주영의 창문을 두드리지만 주영은 끝내 열어 주지 않는다. 「벽지」의 헤인에게서 나타났던 ‘이중의식’은 「반딧불」의 주영에게서도 나타난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창이 울리기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주영은 무릎에 얼굴을 묻을 뿐 창문을 열지 않는다.

78) 앞의책, 158-159면

주영은 학수를 버린 절망감에 유서라도 쓰고 싶고, 당장에라도 학수를 찾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절망적인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주영은 어머니의 꾸밈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주책머리가 그리 없으니 배반을 당할 밖에..... 어머니는 바보야! 어찌면 그리 남의 욕이 뼈에 쏘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집을 다시 갔음 영 갈 것이지, 왜 이리 사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않았던 것이 좋았어. 나를 그냥 버려 두었더라면 좋았어요. 그럼 텅굴다가 죽었을 게 아니에요.”

주영의 얼굴은 열에 들떠 있었다. 한참 동안 주영은 미친 듯이 지껄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랬다. 아무 대꾸도 없었다. 팔짱을 낀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한참만에,

“응 그래, 내가 나가야지. 이런 에미가 네 가슴속에 멍이다. 자식한테까지 팔자치레 못한 것을..... 그걸 모르고 난 너 때문에 이리 살았단다.”

어느 때 보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할말을 다 해버린 주영은 폭풍이 지난 이상한 공백 속에 앉았다가 어머니의 그 말에 새삼스레 놀란다. 너무나 혹독한 자기 자신의 말에 스스로 소스라쳐서 어느 발작처럼 울기 시작한다.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영은 무엇인지 모르게 절박한 감정에 쫓기는 것이었다.”⁷⁹⁾

79) 앞의 책, 162-163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누라가 마주칠 때, 그리고 이복 동생 계영이와 어머니가 마주칠 때 등 이러한 일들은 어머니의 푸념거리요 녀두리가 된다. 여느 때 같으면 편잔을 주거나 통명스런 말대답으로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학수와 헤어진 고통으로 인해 주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에만 열중한 나머지 어머니의 상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이다. 해서는 안될 말을 “미친 듯이” 지껄이던 주영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너무나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주영은 생전 처음 어머니에게 용서를 빈다.

학수에 대한 애정은 주영 자신을 그토록 비굴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주영의 환경을 그렇게 만든 아버지의 상실을 의식하게 한다.

「비는 내린다」에서는 동생 지영이 언니 지숙에게 사랑하는 애인 민수를 빼앗김으로 해서 소외되는 경우이다. 지영은 동생 지윤의 가정교사인 민수와 사랑하는 사이이다. 지영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는 동안 민수는 지영의 언니 지숙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활발하고 고집이 세며 자존심이 강한 지영은 민수에 대한 사랑이 강렬하고 무척이나 끈질겼다. “지영이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을”때도 제일 먼저 민수의 얼굴을 찾았고 민수가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다시 의식을 잃는다. 그러나 민수는 지영을 사랑하면서도 가끔씩 가시 같은 것을 느낀다. 때론 지영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민수 자신을 “나동그러지게 내버려두는 무관심”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다.

지영한테는 난로에서 지금 타고 있는 불꽃같은 정열이 없는 것 같았다.

창밖에 쌓여 있는 눈처럼 싸늘한 여자인 것만 같았다. 옆에 가까이 두고, 또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사랑의 말이 쑥스러워질 것 같고 포옹과 같은 사랑의 행동이 어색해질 것만 같은 여자였었다.⁸⁰⁾

민수는 지영에게서 무언지 모르게 서로가 잘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지영은 것과 속이 단단한 사람이어서 민수 자신이 애정을 표현하기에는 어색한 상대일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지영의 민수에 대한 열렬한 감정을 민수는 읽어내지 못한 것이다.

지영과 민수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모르는 언니 지숙은 그 동안 민수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지숙은 민수를 그리워하면서 민수가 지숙 자신에게로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민수는 지영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숙의 이러한 감정을 눈치 챌 수가 없었다. 얌전하고 내성적인 지숙은 지영이 입원해 있는 어느 날 밤, 그것도 한 밤중에 과감하게 민수의 침실로 찾아온다.

“저도 실상은 왜 이 방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정을 억제하고 지내왔기에 이런 대담한 행동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중략)

“전 민수씨를 사랑했어요. 이젠 민수씨의 의사표시를 기다리는 데도 지쳐버렸어요. 밤마다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그래도 민수씨는 언제나 무관심하기만 했어요. 제가 싫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돌아가 달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다면 깨끗이

80) 박경리, 「비는 내린다」,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19, 지식산업사, 1987, 85면

단념하겠어요.”

어둠 속에 눈이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난로 속에서 지금
이글이글 타고 있는 불꽃같은 것이 그 눈에 타고 있었다.

“가지 마세요.”

민수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숙을 안았다.⁸¹⁾

민수는 사고라고 보면 사고일 수도 있는 일을 저지르고 만다. 이는 민수가 지영을 사랑하면서도 지영과의 사랑에 대해 민수 자신이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영과의 관계에서 민수가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지숙에게 지영과의 관계를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수와 지영은 서로가 “한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밖에 내어 본 일”이 없었고 다만 눈으로 표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거기다가 지영에게는 민수 자신이 애정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대로 느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누나처럼 부드러운” 지숙의 고백을 듣는 순간 민수는 자기도 모르게 불꽃같은 열정에 사로잡혀 지숙과 관계를 맺게 된다. 단순히 객관적으로 보자면 지영도 좋기는 한데 지숙이 지영보다 조금 더 좋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영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사랑의 기쁨이 사라진 뒤, 그 자리에 대신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과 슬픔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지영의 행동은 아주 단판으로 변해서 몹시도 차갑고 우울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지영은 ‘사랑 중독증’⁸²⁾에서 헤어날 수 없다. 지영이 사전(事前)에 언니 지숙에게 민수

81) 앞의 책, 86-87면

82) ‘사랑 중독증’이란 다른 사람과의 애착 관계로 인하여 자기 자신 혹은 주위 환경에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게 되거나 원만히 처리

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만 했어도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영과 민수의 사이를 모르는 지숙으로서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을 쟁취한 것뿐이다.

지숙과 민수의 결혼은 지영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지영은 민수의 상실을 견디지 못해 고모집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간다.

“그럼 넌 대전의 고모집에 안 가고 어딜 갔었니?”

“바람이 났죠. 그 때, 전 다른 남자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⁸³⁾

지영이 집을 나가고 얼마 안되어 6.25가 터진다. 몇 해 동안 소식이 없던 지영은 피난지인 부산의 집을 찾아온다. 고모집에 가지 않는 것이 밝혀져 가족들은 애를 태우며 지영의 생사를 걱정하고 있었다. 지영이 집을 찾아왔을 때 가족들은 너무도 반가워서 지영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트리지만, “지영의 태도는 너무나 차갑다. 육친에 대해서 아무런 애정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냉소하고 저주하는 듯”이 보인다. 지영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얘길 하므로 해서 가족들을 어이없게 만든다. 물론 가족들은 지영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지영은 가족들에 대하여 냉소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민수의 상실은 마치 모든 존재 가치를 다 상실한 것처럼 절망으로 가득차 삶에 대한 의욕이

할 수 없게 되며, 그 관계만이 유일한 만족의 근원이 되는 의존 현상에 빠지게 되는 상태이다. (김중술,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64면)

83) 박경리, 「비는 내린다」,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19, 지식산업사, 1987, 81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수가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어 집에 돌아오고, 언니 지숙과 민수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자 지영은 자신에 대한 비판과 절망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다시 집을 나간다. 지영은 집을 나와있는 동안 미군 장교인 가프틴 마빈과 동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상실에서 오는 상처를 치유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영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한다. 미군 장교와의 동거는 지영이 민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과 고통을 탈피해 보려는 자포자기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한 소외감은 한층 더 심화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랑을 상실한 박경리 소설의 인물들은 자기의 사랑을 지키거나 쟁취하는데 있어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서 소외된다.⁸⁴⁾ 남녀간의 사랑이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처음부터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 그 대처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쩌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어쩌다가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리움, 설렘, 떨리는 행복감으로 꽉 차 있지만, 그 사랑을 잃게 되면 사랑했을 때의 행복감 보다 훨씬 더 큰 절망감으로 좌절하기도 한다. 에리히 프롬⁸⁵⁾에 의하면 사랑도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헤인, 숙혜, 지영, 주영 등도 사랑할 줄 아는 기술이 있었다라면 그들의 사랑을 상

84) 「계산」의 회인, 「전도」의 숙혜, 「집」의 연숙, 「어느 오후의 결정」의 민영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역시 상실의 상처를 안고 그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을 소외시킨다.

85) 에리히 프롬에 의하면 ‘사랑도 기술’이라고 한다. 사랑은 음악이나 의학, 건축 기술과 마찬가지로 배워서 얻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 능력에는 개인의 차이가 있으며, 그 능력을 잘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잘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에리히 프롬, 최의선역, 『사랑의 기술』, 일신서적출판사, 1994)

실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 사회 현상론적 소외에 의한 양상

(1) 사회적 냉대에 의한 소외

사회적 냉대에 의한 소외에서는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가난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작가의 냉철한 통찰력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작가 박경리의 창작 영역의 또 다른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도표없는 길」을 살펴보자.

「도표없는 길」의 주인공 경노는 한 때 소작인을 두고 살 정도로 넉넉한 살림살이였다.

그 때 경노는 상처를 하고 「삼수네」라는 과부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는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삼수라는 사내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러나 마흔이 넘은 경노에게는 그 삼수라는 의붓자식 이외 자기의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가정 형편에 들어온 부엌 계집 아이 순화는 일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이상하게도 계집아이를 순산했다. 경노가 저지른 죄과였던 것이다.

순화는 아버지뻘이나 되는 경노를 따라 살면서 어떤 일인지 몇 번이나 보따리를 싸서 종적을 감추는 일이 있었다. 경노는 그럴 적마다 미친 듯이 그를 찾아 다녔다. 그리 하다가는 하동(河東)에서 혹은 산청(山淸) 골짜기에서 술집에 있는 그를 달

래어 데려오곤 했던 것이다. 세 번째 순화가 종적을 감추었을 때 경노는 부득이 단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살살이 뒤져도 그의 흔적은 묘연했다. 그러던 것이 뜻밖에 일년이 지난 후 전라도 군산(群山)에서 앓고 누웠다는 편지가 날아왔다.

경노가 달려갔을 때는 순화는 어느 술집 구석방에 짐승보다도 천하게 되어 누워 있었다. 그때 경노를 따라온 순화는 도망갈 생각을 딱 버리고 마음을 잡아 살아온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⁸⁶⁾

이러한 과정에서 경노의 살림살이는 거덜이 난다. 논밭 전답을 팔아서 삼수를 공부시켰지만, 삼수네는 “교묘한 방법으로 경노의 살림을 횡령”하고 선 순화를 핑계삼아 집을 나간다. 경노의 재산 횡령으로 삼수네는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땀땀 울리고 사는 형편이다. 이와는 반대로 늙고 병들어 반신불수가 된 경노는 순화가 술장사를 하여 벌어들여 주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을 해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화는 가난을 원망하고 경노를 원망하면서 다시 집을 나간다. 순화의 이 같은 행동은 소외된 여성의 조건에서 나오는 해소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한 나머지 늙고 병든 지아비와 어린 딸에게는 또 다른 소외의 요인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순화의 딸인 열두 살백이 어린 국채만이 반신 불수의 아버지를 돌보게 될 뿐이다. 국채는 남의 집 푸성귀 밭에서 시금치를 훔쳐오거나 식량을 훔쳐와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게 된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헤쳐 나갈 수 없는 가난에 휘말리면서 경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김서방에게 사주

86) 박경리, 「도표없는 길」,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19, 지식산업사, 1987, 158면

책을 빌려 달라고 한다.

경노가 전답이나 죽히 가지고 있었을 무렵에는 경노의 사랑방에서 무릎을 꿇었던 처신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처지에다 자기 영업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졸렬한 김서방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다.

“경노는 국채를 시켜 몇 번이나 사주 책을 빌리러 보냈으나 그럴 때마다 손님이 와 있다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다. 경노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삼수네에게는 죽어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해 왔지만, 어린 국채를 더 이상 굶길 수 없다는 생각에 하는 수 없이 삼수네로 구걸을 하러 보내게 된다.

이날 경노는 국채를 삼수네 집에 보내고 말았다. 죽어도 삼수의 도움은 아니 받겠노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나 어린 국채의 배고파하는 얼굴을 차마 그대로 보고 견딜 수는 없었다. 사흘을 굶으면 남의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처럼, 그러니 삼수한테 하는 구걸쫂م 어떠랴 하는 뱃심이었던 것이다. 그 동안은 남원댁에서 주는 쌀 한 말(小斗)로 연명을 해왔었다. 그러나 한 말이라는 쌀도 한정이 있는 법, 삼수에게서 좀 변통을 해오지 못하는 이상 굶어 죽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경노는 굶어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사실이거니와 국채를 그 몰인정하고 배운 망덕한 삼수녀석한테 구걸하러 보낸 것이 더 울적했다.”⁸⁷⁾

경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

87) 박경리, 앞의책, 163면

다.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사주 책을 빌리러 김서방네로 가게 된다.

개구리 울창이 시절 모르는 김서방의 몰인정한 태도에서 경노는 끝없이 절망하게 된다. 경노의 재산이 넉넉했던 시절에 신세를 지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노의 절박한 처지를 보게되면 도울 수 있는 것이 이웃사촌이고 인지상정(人之常情)인데, 하물며 은혜를 입었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김서방은 자기의 영업을 침해당한다는 생각에 경노를 냉대하게 된다.

남원댁은 사주 책을 들고 경노를 뒤쫓아 왔다. 경노는 “사람이 착하고 인심쓰기를 좋아하는” 남원댁에게 일전에 보내준 쌀 한 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다가 어린 국채에 대한 자책(自責)과 절망이 더욱 더 가중된다.

「그러잖아도 아주머니께 너무 신셀 많이 저서..... 일전에 쌀도 보내 주시고 여간 미안」

「쌀을요?」

남원댁은 의아스럽게 경노를 본다.

「쌀을 그렇게 한 말이나 보내 주셨어.」

「제가 쌀을 보내 드린 일이 없는데요?」

「쌀을 보내지 않았다고요?」

이번에는 경노가 의아스런 표정을 짓는다.

이 때 별안간 여자의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세상에 이웃이 이래서 우찌 살겠소. 응, 이러다가는 우리 푸성귀 밭에는 씨도 남지 않겠네, 드립은 년의 새끼! 에미가 별 지랄을 다 하고 다니더니 새끼도 도둑년이구마, 아아 이 집

영감쟁이는 있나 없나!」

남원택과 경노는 서로 마주본다.

「콩알 만한 가시나가 인지부터 이리 도둑질이 펄펄하니 어디 동네 가운데 두겼나. 무슨 수를 내야지 가만히 둘 줄 아나 어림없지.」

뒷집 여자는 한 참 쇠된 소리를 지르더니 아무 대꾸도 없는 것을 보자 들어간 모양으로 잠잠했다.

경노는 고개를 수그린다. 쌀 한 말에 대한 의심도 풀렸다. 그렇다면 국채는 분명히 도둑년이다.”⁸⁸⁾

경노는 자신의 죄과로 인해 태어난 어린 국채를 도둑을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한없이 빠져든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이성적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것은 소외를 자처한다. 즉 자기가 저지른 과오로 인해 윤리적인 양심 때문에, 자기 내면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가책의 힘에 의해서 소외되는 것이다.

삼수네로 구걸을 하러 갔던 국채가 어깨쭉지가 축 늘어진 채 흐느껴 우는 것을 보자 경노는 국채에 대한 애처로움과 끝없는 절망으로 자탄에 빠진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완전히 차단된 셈이었다. 의붓자식일망정 전답을 팔아가며 고이 길렀건만, 경노의 재산까지 횡령해가고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배신과 냉대뿐이었다. 자신의 죄과에 대한 자책, 그리고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 생각했던 일이 경노의 은혜를 입었던 김서방의 몰인정과 냉대로

88) 박경리, 앞의책, 165면

좌절되고, 경노의 재산을 앗아간 삼수네의 배신 등, 이러한 상황들은 경노의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경노는 자탄과 절망 속에서 목을 매게된다.

「도표없는 길」에서는 도표도 없는 황량한 삶에서 헤어날길 없는 가난과 소외가 암울하게 작품 전편을 뒤덮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희모에 의하면 박경리의 “1950년대 단편 중 「도표없는 길」의 ‘경노’나 「해동여관의 미나」의 ‘미나’ 모습에서 소외와 고독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보편적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것”⁸⁹⁾이라고 한다.

정희모의 말처럼 「해동여관의 미나」는 양공주의 딸인 미나가 존재론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소외의 정점을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해동여관의 미나」는 어느 조용한 B읍의 해동여관에 여섯 살 짜리 미나라는 양공주의 딸이 개구멍받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해동여관에 미나가 떠들어 온 날 오후에, 바다에서 젊은 여자의 시체가 하나 떠밀려 왔다는 소문으로 인해 미나의 어머니일 거라는 짐작들을 하게 된다.

미나는 해동여관에서 안주인 김씨와 바깥주인 최만호 그리고 머슴살이하는 박서방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된다.

미나는 다음해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안주인 김씨는 곰상스럽게 수를 놓은 양복을 미나에게 입혀 주었고 최만호씨는 란드셀을 사다 주었다. 박서방은 신이 나서 미나를 자전거에 실어 학교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미나야? 아저씨 허리 꼭 잡아라. 떨어지면 큰일난다.」

89) 정희모, 「1950년대 박경리의 소설과 환멸주의」, 최유찬편, 「박경리」, 1998, 46면

「응.」

비가 내리는 날이면 미나는 빨간 우비를 입고 박서방을 따라 학교에 간다.

운동회 때도 박서방은 자전거에 음식을 잔뜩 실어다 날랐고 온 집안 식구가 운동장에 다 나와서 미나가 땀 적에는 응원을 했다. 이와 같이 귀염을 받았으나 미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다. 사내 애들이 놀려주는 때문이다. 「양코, 양, 양, 양코!」

미나는 그럴 적마다 얼굴을 가리고 운다. 울면서

「우리 박서방한테 일러줄 테야.」

하며 집으로 뛰어오는 것이었다. 미나는 집에서 노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올케 언니를 되도록 피해서 논다. 올케는 엄마가 없는 구석에서

「갈보 새끼는 뭇 땀에 데려왔담?」

하며 쥐어박기도 하고 꼬집기도 한다.”⁹⁰⁾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나는 양부모와 박서방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집에서는 올케언니에게 천대를 받는다. 최만호씨 내외는 핏줄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당시 사회의 인습에서 혼혈아(양공주의 딸)는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인격이 낮은 사람, 같이 어울려서는 안될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비정상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사회에서 인정된 가치규범” “그런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외로운 인간”⁹¹⁾임을 보여준다. 즉 존재론적으

90) 박경리, 「해동여관의 미나」,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19, 지식산업사, 1987, 324면

91) 박이문, 「실존주의 문학과 인간소외」, 김주연역음, 「현대문화와 소외」, 현

로 소외된 인간이다.

선남선녀가 만나서 그 사회에서 인정한 순리적인 절차에 의해 결혼에 이르게 되어 자식이 생겨난 것은 극히 정상적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모두가 정상적인 만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륜이나 여타의 인간관계에 의해 아이가 생겨날 수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다. 이럴 경우 태어난 아나는 원죄(부모의 죄)로 인해 본인이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게 된다. 다만 겉으로(외모)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막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 구박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나의 경우는 혼혈아이기 때문에 외모에서 이미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자기들과는 인종이 다른데 대해 어색함을 느끼고, 불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미나 역시 ‘혼혈아’라는 멍에가 학교 친구들과 율케언니에게 접근되어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 미나의 오빠(최만호 형의 아들)가 “고아원에나 보내세요. 나중에 커도 걱정이예요. 하필이면 양갈보 새끼를 기를 필요가 어디 있어요?”(325) 라고 하며 본체만체 하는 것이나, 미나의 친구 덕순이가 “양코쟁이? 이잉!”하며 눈을 까집고 혀를 내어 밀고 미나한테 약을 올려주는 것, 또는 황주사가 “야, 양코 잡는다! 아저씨가 잡으러 간다! 잡아서 다리밑의 문둥이한테 가서 팔아야지.”(328) 하고 놀리는 것 등, 아이들에게겐 놀림거리의 대상이요, 어른들에게는 “노리개”감이나 천덕꾸러기 일 뿐이다. 그나마 최만호 내외와 박서방의 보살핌으로 그럭저럭 지내온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흉사가 생기게 된다. “살림을 나간 이 집 큰조카 아들의 아내가 죽은 일이다. 그리고 어미를 잃은 두 살 난 아기를 안주인 김씨는 울면서 안고 왔던 것”(324) 이다. 해동여관에 아기가 들어오

면서 미나의 위치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미나를 감싸주던 엄마도 차츰차츰, 병약한 아기
한테로 애정이 옮겨져 갔다. 미나는 뒷전에 밀려나와 외롭게
놀았다. 이와 같이 주인이 미나한테 무관심하게 되니 자연히
집안 사람이나 손님들까지도 미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특히 조카며느리의 천대는 심해졌다. 이제는 눈이 펄펄 쏟아지
는 날이라도 미나를 데리러 학교에 오는 사람은 없었다. 박서
방만은 언제나 미나를 감싸주었으나 안주인의 눈치가 보여 미
나를 데리러 학교에 갈 수 없었던 것이다.”⁹²⁾

미나를 잘 감싸주던 김씨는 아기에게 정신이 팔려 미나가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친구에게 놀림을 받거나 해서 울고 오는 날이면, 예전처럼 눈
물을 닦아주고 달래주지도 않고 그저 귀찮다는 듯 짜증을 부리는 것이다.
아기가 오기 전에는 언제나 미나를 절에 데리고 갔던 김씨였지만 이제는
늘 아기만 데리고 간다. 뒷전으로 밀려난 미나를 “집안 사람은 모두 다
무관심”하게 된다. 미나에게 심하게 굴었던 덕순이 마저 이사를 가게 되
니 미나는 그만 외로움에 지치게 된다. 어쩌다가 김씨가 장에 가거나 혹
은 불일이 있어 밖에 나가고 없을 때만 아기는 미나한테 와서 논다. 너무
나 아쉽고 쓸쓸했던 미나는 이럴 때 아기의 전부를 차지한 것 같은 기분
이 되어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 미나는 아기를 데리고 2층 방에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짹자꿍도 해준다. 그러나 아기는 얼마 가지 않아 아래층
으로 내려가자고 칭얼댄다. 혼자서 층계를 내려 갈 줄 모르는 아기에게

92) 박경리, 「해동여관의 미나」,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19, 지식산업사,
1987, 325면

미나는 혼자 가라고 하며 몇 발자국 앞서 간다. 아기는 불에 덴 것처럼 울어댄다. 이 때 미나가 아기에게 뛰어가서 안으면 아기는 전신을 내맡기며 찰싹 달라붙는다. 미나는 아기를 힘껏 껴안아 주며 눈물이 폭 솟을 것 같은 보드라운 아기의 감촉에 외로움을 잊는다. 이 순간만큼은 아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만족감에 젖는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관심과 멸시를 받던 미나는 자기 존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장난을 되풀이하게 된다.

“저녁때 미나는 아기를 데리고 이층에 올라갔다.

아기가 얼마 놀지도 않고 할머니한테 가자고 칭얼댔다. 「이 기 집에 또 가잔다?」

미나는 아기하고 이렇게 단둘이 더 오래 놀고 싶었다.

아기는 울상이 되어 「아즈마 가야, 응?」

「몰라 너 혼자 가라이.」 「우왕!」

「난 몰라 몰라. 그럼 아줌마 혼자 간다아」

미나는 혼자 복도로 뛰어 나왔다. 아기는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 왔다. 층계까지 온 미나는 모르는 척하고 내려온다. 미나는 더 강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아기가 자기한테 안기는 그 순간의 눈물 겨움도록 즐거운 기분을 더 크게 간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아기는 허겁지겁 달려가서 미나한테 손을 뻗다가 그만 발을 헛디뎈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아앗!」

층계아래 떨어진 아기의 입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왔다.”⁹³⁾

미나는 아기에게서 만이라도 자기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외로움을 해소 시키고자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지만, 아기가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므로 해서 미나의 위치는 더욱 냉대를 받으며 소외를 가중시키는 입장이 되어 버리게 된다.

이와 같이 냉대와 소외가 가중되는 경우는 「군식구」에서도 나타난다. 「군식구」의 양서방은 사위 진길이가 사랑하는 개, 「메리」를 죽임으로 해서 더욱 천대를 받으며 소외를 가중시키게 된다.

「군식구」의 양서방은 중화요릿집을 경영하는 중국인 사위 집에 얹혀사는 신세이다. 그는 집안 사람과 이웃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며 살아간다. 양서방에게는 언제나 그를 따라 다니는 「도꾸」라는 개가 있는데 양서방처럼 늙고 초라하게 생겼지만, 양서방은 손녀 용화보다 도꾸를 더 사랑했다.

양서방의 아내는 용화 엄마인 양서방의 딸이 네 살 먹었을 때 딴 남자를 따라 가버렸다. 그리고 용화 엄마가 다섯 살 먹고 그의 오빠가 일곱 살 때, 오빠는 공산군에 끌려 북으로 갔다. 이 때부터 양서방은 밤낮 술에 젖어 살아왔다.

이윽고 양서방의 길쭉한 얼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꽃가지를 안고 걸어가는 여자에게로 눈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비가 그치고, 사방이 되살아난 듯한 날씨. 여자의 모습은 비에 씻긴 한 송이 꽃처럼 싱싱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양서방은 고개를

93) 앞의 책, 325면

슬며시 돌린다. 누구를 닮은 것 같고 누구를 눈앞에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왜 오늘따라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별나다고 혀를 차는 것이었다.

벌써 이십여 년 전,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도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었다.”⁹⁴⁾

이십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양서방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아내에 대한 집착을 아직도 지워 버리지 못한다. 가갯집 젊은 여자를 볼 때마다 혹은 고운 여자를 볼 때마다 아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북으로 끌려간 뒤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전쟁을 원망하며 살아간다. 이 같은 일들의 “망각에 대한 심한 욕구가 마약을 청하듯이 그렇게 「알콜」의 냄새를 청”(180)하게 되어 이십여 년을 술과 더불어 살아왔다.

실연과 아들의 상실에 대한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양서방은 유일하게 「도꾸」에게서 위안을 얻는다. 양서방이 때리거나 차거나 구박을 해도 변함없이 양서방 뒤를 따라 다니는 것은 오직 「도꾸」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 진길이가 젊고 윤기가 흐르는 「메리」라는 순종 세파트를 데리고 온다. 양서방은 생전 짓을 줄 모르는 늙고 우둔한 「도꾸」가 얼마가지 않아 처분되리라는 생각에 속상해 한다. 「메리」가 오고 난 후 몇 일 동안 양서방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신세 타령을 한다.

「도꾸야, 도꾸야, 니팔자 내 팔자가 와 이렇노?」⁹⁵⁾

94) 박경리, 「군식구」,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19, 지식산업사, 1987, 172면

95) 앞의책, 174면

「도꾸야, 도꾸야, 니 신세 내 신세가 와 이렇노. 아이
구.....」 96)

「도꾸」와 같은 처지인 양서방은 미친 사람처럼 「도꾸」를 끌어안고 매끄러운 털 속에 얼굴을 부비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 진길이가 「메리」를 풀어 「도꾸」에게 싸움을 붙인다. 「메리」가 「도꾸」를 공격하자 양서방은 무의식적으로 돌을 주워들고, 「도꾸」가 「메리」를 공격할 때는 사위 진길이가 「도꾸」를 걷어차고 「메리」를 구해간다. 이 일로 인해 양서방과 사위 진길이 사이는 감정의 벽이 더 두터워졌다. 양서방이 밤낮 술에 젖어 살아도 겉으로는 아무 말 안하는 사위 진길이지만 속으론 장인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이다. 그러던 것이 사위 진길이가 「메리」를 통해 장인을 대신해서 「도꾸」를 공격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양서방도 평소에 사위 진길이를 늘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양서방이 딸을 되놈에게 팔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도 되놈의 장인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양서방은 딸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되놈의 장인이라고 놀림을 받고 소외를 당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위가 싫었던 것이다. 사위 뿐만 아니라 손녀 용화도 ‘되놈의 자식’이라고 정을 주지 않았었다. 사위 진길이가 장인에 대한 불만을 「메리」를 통해 「도꾸」를 공격하게 했듯이, 양서방도 사위 진길이에 대한 불만을 손녀 용화에게 표출하게 된다.

어젯밤의 일이었다. 소리소리 지르며 떼를 쓰는 용화가 양서방
한테는 몹시 미웠다. 그렇지 않아도 낮에 장거리의 장국집 앞

96) 앞의책, 177면

에서 얼씬거리고 있던 진길이를 본 양서방은 속이 한창 뒤집혀서 있는 판이다. 그는 대뜸, 달려들어 용화의 뺨을 찰싹 갈겼다.

「되놈의 새끼, 아가리 닫치지 못해!」

맹가집에 「마아장」을 하러 간 줄만 알았던 진길이가 뒤에서 이 광경을 봤다.

그의 붉은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지더니 양서방한테 덤벼들었다. 진길이의 용화에 대한 사랑이란 실로 지극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길이의 노여움은 오래 전부터였고, 이 일은 그 노여움을 폭발시키는 한 실마리가 되었던 것이었다. 진길이는 그 완강한 팔을 양서방의 목에다 감았다.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고 성가신 존재였던 것이다. 고용인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말리는 척하면서 양서방의 머리통을 책상 위에다 처박고, 발길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차면 차이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마룻바닥을 뒹구는 양서방 옆에는 그의 딸이며, 진길이의 아내인 용화네가 벌벌 떨며 서 있었다.”⁹⁷⁾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양서방의 위치는 더욱 소외 받는 처지가 된다. 사위와 그의 고용인들에게 심한 구타까지 당한 양서방은 “고독과 설움이 뼈속에 사무치듯이 마음에 저리”지만 누구하나 위로해 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 전에 친하던 술친구들마저 빈정거리며 저회끼리 어울려서 양서방 앞을 지나갈 뿐이다. 딸이 몰래 쥐어주는 용돈을 털어서 술을 사게 되어도 되놈의 장인이라고 부르며 놀림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97) 앞의 책, 178-179면

이다. “양서방은 집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 외토리처럼 동떨어진 신세가 되고”만다. 양서방이 사위한테 얻어맞고 난 후부터는 딸에게 용돈마저 탈수가 없게 된다. “진길이가 영악스럽게 돈을 챙겨 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에게는 용돈 대신 필수품은 손수 사오는 방침을 취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와 양서방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서 역할과 지위가 완전히 상실된 양서방은 그럴수록 화풀이 술이 먹고 싶었지만, 딸에게서 돈이 나올리가 없었다. 양서방은 이발을 핑계삼아 번번이 돈을 타서 술을 마시고 외상 이발을 하게된다. 외상이 많이 밀려 이발관 주인에게 먹살이 잡혀 동네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뒷거리의 이발사한테까지 신용을 잃게 되지만 술을 먹지 않고는 못 견딘다.

단오 날이었다. 휴업이어서 고용인들은 모두 놀러나가고 딸 내외도 용화를 데리고 온양 온천에 갔다. 행한 집안에는 개 두 마리와 양서방만 남아 있게된다. 양서방은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홀」에 있는 「배갈」을 마시고 잠이 든다. 집안에 양서방 혼자 있는 것을 안 사진관 사나이는 공술을 얻어먹기 위해 양서방을 깨운다. 가뜩이나 소외당하고 있던 처지라, 양서방은 사진관 사나이가 자기를 찾아준 것이 그저 감지덕지하여 텅빈 「홀」에서 부어라 마셔라 한다. 술이 곧드레가 된 사진관 사나이는 계속 술을 청하며 양서방의 콤플렉스를 자극하게 된다.

「뭐? 이 늙은 개자식이! 딸년을 되놈한테 팔아먹고, 그 주제에 큰소리치네. 이 자식아! 그래 딸 팔아 처먹는 술이라서 아까운가? 웅!」

「.....」

「아들놈은 빨갱이. 딸년은 되놈의 첩,그래도 개 팔자보다

낮다고 술을 쳐먹어? 하하하」 98)

사진관 사나이가 이 같이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은 자신이 군인 사위를 두고 있다는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공술을 얻어먹는 날이라도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앞으로도 양서방 앞에서 월등한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다는 심사 때문이다. 사진관 사나이의 이 같은 행동에 자극을 받은 양서방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슬프게 운다. 얼마나 지나서 양서방의 취한 눈에 「메리」가 보인다. 양서방은 도끼를 가져다 「메리」를 무참히 살해한다. 군식구로 눈치를 보며 살아야하는 양서방은 그의 내면에 고립감과 고독감이 강화된다. 이 작품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만 앞으로 양서방의 처지가 어떻게 될 거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다.

앞의 세 작품들은 타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앓아 있을 곳이 없는 무력하고 소외된 인간의 모습들이다. 그들은 주어진 사회환경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냉대를 받으며 끊임없이 단절감을 느끼는 인물들이다. 소외된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는 이들은 외롭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마련되어진 운명의 길을 밟아 갈 뿐이다. 이 들 세 작품들은 사회로부터의 냉대와 단절감이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더욱 더 냉대와 소외가 가중되는 입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8) 앞의 책, 184면

(2) 이념에 의한 소외

<『시장과 전장』의 하기훈>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38선을 경계로 해서 분단이라는 슬픈 역사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분단과 이로 인한 이데올로기 대립은 적대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대립 현상은 우리 문학(소설)에서도 대립을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전후 소설의 특징은 반공 이념에 근거한 휴머니즘으로 나타난다. 전쟁의 상흔은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치우치게 했고, 이 같은 현상은 작품 속에서 윤리적인 차원과 반공 이념의 경직된 풍토를 형성하게 된다. 이념에 있어서 흑백 논리로 일관했던 당시 상황에서 『시장과 전장』은 『광장』과 더불어 이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비교적 객관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데 그 문학적 성과를 두고 있다.

『시장과 전장』은 하기훈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남지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하기훈을 중심으로, 좌측의 이념으로 인해 하기훈이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는 하기훈을 통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맹목성과 허구성에 의해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을 심도 있게 추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기훈은 작품 서두에서부터 그가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흐린 하늘, 비가 쏟아지려는지 후텁지근하다. 왼편을 돌고 오른편을 돌고 또 왼편을 돌고 오른편을 돌고 복잡한 골목이다.

(중략)

골목은 두 줄기. 사다리꼴로 갈라지고 그 사다리꼴 한가운데 구멍 가게가 하나, 구멍 가게로 들어간 기훈은 담배를 사가지고 호주머니 속에 넣는다. 가게 안은 어두워서 여자가 입은 녹두빛 저고리는 우중충해 보였다. 기훈은 거스름돈을 받으며 묻는다.

“여긴 179 번집니까?”

“385 번지예요.”

여자가 대답한다. 기훈이 붙어본 번지수에 에누리 없는 갑절이다.

“전기는 아홉시에 들어옵니까?”

“네 시 반에 들어와요.”

이번에는 절반이다. 기훈이 빙그레 웃었으나 여자는 그 웃음을 튀기듯 골목을 살핀다.⁹⁹⁾

위의 인용문은 하기훈이 지령을 받기 위해 접선 장소로 가는 장면이다. 왼쪽과 오른쪽의 반복, 갑절과 절반의 암호를 통해 하기훈이 선택한 길이 무언가 뒤틀린 것이라는 걸 작가는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하기훈은 남쪽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원이다. 그는 변절자 안핵동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나오는 길에 쓰러진 ‘가화’를 구해주고, 이를 인연으로 가화를 가끔 만나게 된다. 하기훈은 가화에게서 미모나 아니면 특별한 매력이 있어 호감을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안핵동을 암살하려는 계획으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절박한 자신을 위로 받고자 가화를 찾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핵동이 죽고 하기훈의 암살 음모는 싱거운 해프닝으로 끝

99) 박경리, 『시장과 전장』, 지식산업사, 1980, 19-20면

나자 하기훈은 가화를 잊게 된다.

하기훈은 자신이 선택한 이념에 대해 신념을 갖고 있는 철저한 코뮤니스트이다. 그는 석산 선생의 제자로 일제시대에 사상운동가인 석산에게서 사회주의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석산은 나중에 아나키스트가 되지만 하기훈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석산 선생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석산과 하기훈은 서로 그 궤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확실히 한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하기훈과 석산은 열띤 사상 논쟁을 벌이게 된다. 석산은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를 방패삼아 사람을 모조리 임금 노예로 만들었고 공산주의 사회는 미래의 행복이라는 공수표 아래 자유를 박탈”했으니 어느 쪽도 택하지 않겠다고 하며 “극단과 극단은 파괴와 멸망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기훈은 어느 쪽이든 하나를 택하라고 하며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모든 것에서 손을 떼라고 한다. 석산 선생과 하기훈의 논쟁은 서로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일 뿐,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논쟁은 이 소설을 반공 소설로 격하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며, 이후 하기훈의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암시적 장치이기도 하다. 전쟁이 일어나자 하기훈은 석산에게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석산은 인민 재판에 붙이라고 하며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 하기훈은 석산에게 안면을 완전히 바꾸어 “기계적인 태도와 말투”로 대함으로써 예전에 부모 자식 같았던 관계를 무색하게 한다. 이러한 태도는 석산의 부인인 김여사가 석산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북만주 땅에서 같이 지내던 정리를 생각해서도 안 그런가, 기훈이. 밀가루를 사다가 난로 위에 호떡만 구워먹지 않았나? 우

리는 한 겨울을 보내면서..... 눈이 녹는 늦봄엔 집이 무너질까 봐서..... 우리는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운 일도 있었고, 마차를 타고 셋이서 하얼빈으로 도망 가던 날 자네는 외투를 벗어서 나에게 입혀 주었지. 눈보라 속에 우리는 한덩어리가 되어 울지 않았다. 그 만주 벌판에서 굶으며 같이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이야..... 기훈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옛날 일을 생각해 주게. 그 양반이 몹쓸 짓을 했다고, 공산당 욕 좀 했기로서니 본시 입이 험해서 그렇지 속마음이야 어디 그런가? 해방이 되어 그렇게 못살게 굴던 형사놈을 길거리에서 만나도 뺨 한 번 못 때리는 어진 양반 아니던가?”¹⁰⁰⁾

김여사는 옛정을 생각해서 석산을 살려 달라고 인정에 호소하지만, 하기훈은 약속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하기훈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조남현은 “이렇듯 안면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역시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는 『시장과 전장』의 한 한계점이다”¹⁰¹⁾라고 하며 하기훈의 태도가 지나치게 비약적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우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연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혁명가는 한 개의 선고된 존재,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떠한 이해 관계도, 일도, 감정, 소유물, 이름도 없다”는 공산주의의 교의문답(敎義問答)을 볼 때, 혁명 사상이 투철한 하기훈으로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인민의 해방’이라는 보다 큰 사명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쯤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훈은 전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100) 박경리, 앞의 책, 170-171면

101) 조남현, 「『시장과 전장』과 이념검증」, 최유찬편, 『박경리』, 새미, 1998, 106면

“본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하기훈의 투철한 사명감은 그 당위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공산주의자로 대변되는 하기훈의 생각은 민중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비도 없이 시장에 가는 저 여자도 이제는 붉은 지폐를 거절하겠지. 틀림없이.....’

전장(戰場)과 시장(市場)이 서로 등을 맞대고 그 사이를 사람들은 움직이고 흘러간다. 사람도 상품도 소모의 한길을 내달리며, 그리고 마음들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이다. 사라져 가는 민심을, 사라져 가는 인민들의 불길을 억지로라도 되살리기에는 오직 승리가, 사람과 상품의 소모를 막아줄 결정적인 승리가 있을 뿐이라고 기훈은 생각한다.

‘민중을 믿다니 어렵도 없는 소리 그들도 결코, 결코 우리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어떠한 약속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오직 현실을 받아들일 뿐이지.’¹⁰²⁾

영문도 모른 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민중들의 마음은 자신이 소모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서 오로지 살아 남으려고 할 뿐, 어떠한 약속도 믿지 않고 있다. 하기훈은 이러한 민중들의 민심을 억지로라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민의 해방”이라는 구호는 민중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요 허울 좋은 명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하기훈의 이러한 태도는 그 자신과 그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과의 괴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시이맨의

102) 박정리, 앞의책, 167면

‘자기소원(自己疏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기훈은 전시에 밀려 서울을 떠나기 전에 가화를 다시 찾게 된다. 전시의 상황이 불리해 지자 불안한 심리에서 가화를 다시 찾는 하기훈은 가화에게 자신은 아무도 사랑한 일이 없으며, 자신의 이념만을 사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지구에서 반동은 모조리 말살이다! 단 한 놈도 살아 남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것은 하기훈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기훈의 이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기훈의 이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그의 주변 인물인 장덕삼과의 언쟁을 통해서 더 잘 나타나고 있다.

“학생 시절에 나는 연인을 생각하듯 코뮌리즘을 동경했지요. 학병으로 북지에 끌려갔을 때도 연안으로 탈출하는 꿈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낭만이었죠. 확고한 이념보다.....”
(중략)

“.....사상으로 시작된 게 아니구 혁명가의 한 스타일을 동경하며 코뮌리즘에 접근해 간거죠. 아니 혁명가의 스타일이기 보다 소설적인 인물, 나는 한 때 문학을 하려고 생각 했었지요. 그런 소설적인 인물이 나를 코뮌리스트로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중략)

“.....월북한 그 당시의 청년들은 모두 이상주의자 들이었습니 다.”¹⁰³⁾

장덕삼은 자신이 이념보다는 소설적인 인물처럼 혁명가의 한 스타일을

103) 박경리, 앞의책, 199면

동경해서 코뮤니즘에 접근했다고 고백한다. 장덕삼은 이론적인 환상으로 코뮤니스트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 집단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장덕삼은 당시의 청년들도 자신 처럼 “그런 스타일을 빌려오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며 몇 사람은 그런 연유에서 코뮤니스트가 만들어 졌을 거라고 한다. 하기훈은 장덕삼이 “사람죽는 꼴을 보더니 완전히 시대 착오에 빠졌”다고 냉소를 보내지만 장덕삼은 계속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하기훈에게 털어놓는다.

“월북한 이후..... 저는 여러 번 회의에 빠졌습니다. 몇 사람의 지도자들을 빼놓고 과연 지식분자들이 그 세계에서 배겨날까 하구요.”

“.....”

“같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문득 혼자 서 있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벽이지요. 지식분자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에서 열등감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역시 괴로운 일이더군요. 자의식이란 그리 쉽게 제거되는 것도 아니구 점점 광대가 되어 간다는 자기 혐오, 자기 경멸, 고립감, 적어도 코뮤니스트끼리에는 그 계급의식을 닦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중략)

“장동무가 듣고 싶어하는 말하지. 남반부에 완전한 해방이 오면 그때부터 오 개년 혹은 십 개년 계획을 할 일꾼들은 따로 있어. 당신이나 나 같은 소모품은 쓸모 없이 된단 말ियो. 어느 교의 문답 말마따나 우리는 가차없이 파괴하는 것, 마르크

시즘은 행동의 철학이지.”¹⁰⁴⁾

장덕삼은 사상으로 시작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던 만큼, 코뮤니스트의 생활에 동화해 나가지 못하고 여러 번 회의에 빠진다. 그는 공산주의의 이념과 지식인으로서의 엘리트 의식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점점 광대가 되어 간다는 자기 혐오, 자기 경멸에 빠진 것이다. 이는 거부 및 거절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포용이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시이맨이 말하는 ‘사회적 고립’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장덕삼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밀어내는 벽”을 느끼며 그가 속한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좌절로 인해 생겨나는 소외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기훈은 필요한 시기에 쓰여지는 ‘소모품’임을 역설하며 교의문답처럼 가차없이 파괴하는 ‘행동의 철학’이 그들이 할 일임을 강조한다. 하기훈과 장덕삼의 이 같은 언쟁을 통해 작가는 남반부 해방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하기훈의 소외를 보편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허울 좋은 목적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중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허한 명분임이 농민의 입을 통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빌어먹을 놈의 세상, 살이 살을 무니 뿔이 될 거요. 우리 농사꾼이 밥 달라 했나 옷 달라 했나. 땅 파먹고 죄 안 짓고 선영 모시고 자식 기르며 살아 왔는데 대국놈들이나 쳐들어왔다면 몰라도 이 좋은 땅에 한 물줄기를 타고 태어난 우리 백성들이 서로 잡아죽이고 뜯어 죽여야 쓰겠소? 대관절 누구 뺨에 이르는 거요? (밀줄 필자) 나는 누구보고도 이런 말 하오. 다 살대

104) 박경리, 앞의책, 201면

로 살았으니께 죽인대도 겁날 것 없소. 말은 바로 하지, 우리도 한이 맺힌 가난한 농군이요. 남같이 벼섬 쌓아 놓고 편히 살고 싶소. 왜 안 그러겠소? 못씀니다, 못써. 사람 죽이는 것만은 안 된단 말이오, 사람을 개 잡듯 패죽이니 쌀알이 창자 속에서 곤두설 지경이지.”¹⁰⁵⁾

이와 같이 ‘남반부 해방’이라는 목표는 하기훈의 고독한 행동철학에 불과한 이론이요. 날카로운 현실의 감각과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인민의 해방’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인민은 정작 대관절 누구 땀에 이르는 거냐고 반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하기훈은 이데올로기의 이념에서 자신의 이데아를 찾으려 하지만 그 이념에 대한 강렬한 욕망은 오류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인민의 해방이란 인민을 위한 진정한 해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기훈은 어깨에 부상을 당해 후방의 야전 병원으로 이송된다. 아비규환 같은 야전 병원에서 하기훈은 같은 동지들의 참상에는 아랑곳없이 간호 장교와 농담을 주고받는 여유를 보인다. 이것은 하기훈이 철저한 코뮤니스트임을 감안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하기훈의 내적인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면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작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인간의 실존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왼팔 다친 사람 적탄에 맞은 것 아니야요. 지가 지 팔 쏜 거 디요.”

105) 박경리, 앞의책, 206-207면

“지가 지 팔을 쏘아?”

“그렇디요. 지가 지 팔 쏜 거디요. 동무니께 얘기하니께 딴사람
한텐 말 말라우요.”

소년은 다짐하고 나서,

“낙동강에서는 부상당하디 았으믄 모두 죽거든요. 후퇴 안 되
니께 죽고 마는 거디요. 부상 당하믄 후방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께 모두 살라고 그러는 것 아니갔소.”¹⁰⁶⁾

죽음을 눈앞에 둔 급박한 순간에 부딪히면서 인간은 생존 본능에만 집착
하기 마련이다. 좌익에 맹목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틀을 벗어나 현실의 실존에 매달리게 된다. 자
기 자신들의 팔을 쏘아 장애자가 되더라도 살아 남고 싶었던 것이다. 야
전 병원에서도 냉대를 받는 이들은 이념과 현실 양쪽에서 소외된 자들이
라고 할 수 있다. 전세가 악화되자 하기훈은 지리산으로 향한다. 하기훈
은 지리산에서 다시 장덕삼을 만나게 된다. 장덕삼은 회의에 빠져 이념의
토대를 상실한 채 낯이 나간 사람처럼 멍해져 있었다. “그이 바보 다 됐
소. 말 안하는 병에 걸려 꼬치꼬치 말라 버렸지요.”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덕삼은 자기네 편의 잔인성을 보고는 이념도 목표도 상실한
채 허탈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기훈을 보자 분노를 터트리게
된다.

“그 무지막지한 머슴놈들이 대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꼴은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오. 피에 굶주린 이리떼 같은 놈들

106) 박경리, 앞의책, 237면

이 젓먹이 아이까지 대창으로 찢러 죽이더군. 하동무도 그 꼴 많이 봤을 게 아니오?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그것을 구경했느냐 말이야!”¹⁰⁷⁾

하기훈은 장덕삼의 이 같은 태도를 보자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반가운 인사가 너무 험하게” 났다고 하면서 장덕삼이 전향한 줄 알았다고 탄전을 피운다. 장덕삼은 자기가 선택한 이념의 세계에서 오는 이질감을, 자신이 선택한 여자에게 배반당했던 것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이념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기훈이나 장덕삼 자신이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하기훈이 좀 더 냉정하고 참을성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고 한다. 이것은 장덕삼이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벗어난 인간의 진실된 모습의 발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덕삼은 무산계급의 본능과 부르주아 계급에 뿌리를 둔 지식분자의 의식이나 의지는 결코 같아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하기훈의 이념에 대한 신념을 뒤흔든다.

“나는 그 때 그 기분을 진정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머슴들처럼 왜 대창을 들지 못했던가. 그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들 성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주의 아들입니다. 나는 대학을 나온 인텔리입니다. 문학을 탐독하고 마르크시즘에 열광한 나는 결코 노동자는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인텔리였으니까요. 아시겠어요? 대창에 찢어진 사람은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창한 집단을 떠나서 바로 내 누이, 내 부모, 바로 내 계급이었습니다. 내가 난 계급이었

107) 박경리, 앞의책, 311면

습니다. 그네들이 어째서 지식분자를 경계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나는 늘 불만을 느꼈지만 그리고 고독했지만 나는 그 때 내 계급의식에 눈떴던 것입니다. 본능이 아니면 안됩니다.”¹⁰⁸⁾

장덕삼은 표면에 나타난 좌익의 도식적인 이론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확실히 체험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 청부업자 같은 무산 계급의 맹목적인 살인 만행에 의해 장덕삼의 환기된 감정을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덕삼은 수일이 도망치려는 걸 도와주다가 하기훈에게 발각된다. 하기훈은 수일에게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아무도 그 집단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 장덕삼의 이 같은 계획을 눈치챈던 하기훈은 장덕삼에게 냉혹하게 추궁을 하고 정덕삼도 지지 않고 하기훈의 본성을 자극한다. 하기훈은 끝까지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후 하기훈과 장덕삼은 토벌대에게 추격을 받게 되고 장덕삼은 붙잡혀서 결국 전향을 하게 된다. 하기훈은 자기네 세력이 결국엔 토벌대에게 전멸될 것이라는 걸 짐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가화를 살리기 위해 전향을 해서 토벌대 대장이 된 장덕삼과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하기훈은 장덕삼과 만나서 가화는 코뮤니스트가 아니니 살려 달라고 한다. 장덕삼은 하기훈도 함께 전향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하기훈은 자신에게서 영웅심은 죽지 않았고 개처럼 살고 싶진 않다고 말한다. 이 같은 부분에서는 장덕삼과 하기훈의 대조적인 성격이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성적인 성격의 장덕삼과 논리적인 성격의 하기훈이 결코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장덕삼은 그 동안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하기훈도 공감해 줄 것을 그토록 바랬지만, 하기훈은 그

108) 박경리, 앞의책, 327면

가 선택한 이념의 논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다. 변절자 안핵동을 암살하려는 하기훈이었고, 변절자 석산 선생을 인민 재판에 회부시킨 하기훈이었다. 이러한 하기훈으로서의 자신의 이념을 변절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치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기훈의 내면에서는 이미 그 신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기훈의 논리대로 하자면 장덕삼이 그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자기 비판’을 시켜야 했고, 수일이가 도망치도록 도와주었을 때 이미 죽었어야 했다. 그리고 자기네 집단에서 도망치는 걸 막기 위해 수일을 사살한 기훈이 몰래 가화를 살리려고 한 것을 볼 때, 하기훈의 내면에서는 이미 그의 이념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생동안 목에 걸린 가시 같은 배반자라는 말”을 지워 버릴 수가 없는 하기훈은 “여자를 안고 뒹굴어도 배반자 배반자 하는 말이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을”것 같아 자신은 끝까지 전향 의사를 밝히지 못한다. 하기훈은 자신이 선택한 이념이 오류라는 것을 알면서도 배반자 보다는 차라리 그 이념의 논리 안에서 ‘한 개의 선고된 존재’로 그리고 ‘영웅’으로 죽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처럼 하기훈은 그가 선택한 이념으로 인해 고독하고 외로운 그리고 소외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IV. 박경리 단편에서의 소외의 의미

앞장에서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불신시대」, 「흑흑백백」에서는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를 작품화해서 주인공들이 그와 같은 세계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악”과 “인간 정신이 물체화 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고발이요 반항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도」, 「쌍두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체로 그들의 내면 심리에 집착하여 자아의 세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주관적 정서속에 갇혀 있는 폐쇄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결점이나 불행한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피해의식 때문에 현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변모하지 못하고 정체된 삶을 살아가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박경리는 이 같은 인물들의 성격을 추적해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거부 행위를 하며 소외되는가를 포착하고 있다.

「반딧불」, 「벽지」, 「비는 내린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 작품의 주인공들 또한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방부터 자기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성공적인 사랑의 결합이 불가능해져서 그들이 처한 환경을 거부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사랑의 순수’한 세계에 대해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작가의 편향(偏向)인 것처럼 보인다.

「도표없는 길」, 「해동여관의 미나」, 「군식구」의 경우는 당시대의 실상을 잘 관찰하고 그 구조적인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 작가는 이들 세 작품을 통해서 당대 현실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드러낸다. 냉대 받는 인물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이다.¹⁰⁹⁾ 다만 어떻게(?) 왜(?) 냉대를

받는가가 다를 뿐이다.

박경리 작품들은 대부분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 스스로 소외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 세 작품들에서는 예외적으로 타에 의해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것은 힘없고 나약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깊은 연민과 사회 인습에 대한 반항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시장과 전장』에서는 “하기훈이 신봉하는 공산주의의 한계를 사실적으로 포착하려든다. 말하자면 공산주의(혹은 그 대리인인 하기훈)의 본질은 대의명분을 위해서 인간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파괴하는, 그로 인해 자기 기만적인 허위의식에 빠져”¹¹⁰⁾서 소외 될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우익적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에 의한 불신의 세계와 성격의 결함으로 인해 지나친 자의식과 그 예민함에 기인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의 고통 속에서, 주위의 냉대로 인한 절대 고독의 출구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분단과 이로 인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중심으로,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소외된 삶을 살아간다. 작가 박경리는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반항과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서의 거부로써 소외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경리는 주로 등장인물들의 반항과 거부로써 소외를 다루고 있는데 비해 동시대의 작가 손창섭은 일그러지고 뒤틀린 인물들을 통해서 소외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호철은 주인공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느낌으로 소외(異域感)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홍성원은 사회조직의 메카니즘에 의한 소외를 다루어 소외에 대한 관심들이 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09) 요즘 우리 청소년 사회에서는 ‘왕따’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을 냉대하고 소외시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10) 강진호, 「주체확립의 과정과 서사적 거리감각」, 국어국문학회, 1998, 343면, (국어국문학 제122호 별쇄본)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경리 단편의 작중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소외에 대한 극복의지의 자장(磁場)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극복 의지의 가능성이 있음을 「불신시대」와 「벽지」에서 시사하고 있다. 「불신시대」의 진영이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나, 「벽지」의 혜인이 사랑하는 병구의 상실로 인한 혜인 자신의 마음의 벽지를 개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은, 소외에 대한 극복 의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 『표류도』, 『시장과 전장』 등에 와서는 좀 더 성숙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약국의 딸들』의 경우에는 김약국 가계(家系)의 운명적인 관계를 구체화하면서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작품 영역이 가족으로 확장된다.¹¹¹⁾ 그리고 『표류도』와 『시장과 전장』에서는 사회로 확대되면서 주인공들의 의식이 ‘가능성’에서 ‘가능’으로 변모된다.¹¹²⁾ 이들 장편에서는 단편에 나타난 특징을 갖고 있

111) 김약국은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사는 길을 택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킨다. 한실택은 김약국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평생 외롭게 살다가 비명횡사(非命橫死)하게 된다. 그리고 김약국의 딸들은 배반과 치정, 파멸과 죽음들로 점철된 파국을 보여준다. 김약국의 가계는 마치 소외된 인물들의 집합소 같은 느낌이 든다.

112) 「표류도」의 현희는 전쟁 미망인으로 아이도 잃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소외된 삶을 살아가지만, 타인과의 사랑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극복의지의 전망을 보여준다. 「시장과 전장」의 경우는 지영이가 전쟁으로 인해 남편과 어머니를 잃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이것은 당시 전쟁으로 인해 온갖 고생을 겪게 되는 민중의 표상으로도 이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덕삼이 붙잡혔을 때 살고 싶어서 당면한 현실과 타협을 하고 정직한 자백서를 쓴 것이나, 가화가 커뮤니티가 아니면서도 기혼을 찾기 위해 ‘의용군’에 들어간 것, 기혼이 가화를 살리기 위해 장덕삼과 타협을 한 것 등,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인공의 의식이

으면서도 소외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¹¹³⁾ 장편소설 자체가 장르 특성상 주인공과 사회와의 관계를 전제(前提)로 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만큼 박경리의 관심이 사회로 확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외의 극복 의지는 살아야 한다는 생의 의지로 나타난다. 소외된 모든 억압적 상황을 보류한 생명의지는 『표류도』, 『시장과 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살아야 한다는 것보다 더 절박한 일은 없다. 어떠한 절박한 골목길에서도 부정하지 못할 것은 자신의 생명.....¹¹⁴⁾

나를 현실에 적응 시켜야 한다.

내 생명이 있기 위하여 나를 변혁 시켜야 한다.¹¹⁵⁾

“밟혀도 밟혀도 뺨어 가는 잡초. 난 잡초야!” (중략)

“살고 싶다! 내 자식들 내 어머니. 당신은 죽어도 난 죽지 못해요.”¹¹⁶⁾

살고 싶은데 죽는 바보는 되기 싫단 말이오. 잡혔을 때 나는 살고 싶어서 정직한 자백서를 썼습니다.¹¹⁷⁾

‘가능성’에서 ‘가능’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예(例)라고 할 수 있다.

113) 『노을진 들녘』에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악한 사람을 응징하며, 『내 마음은 호수』에서는 사회를 변혁하려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 『단층』의 경우에는 전쟁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던 인물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간다.

114) 박경리, 『표류도』, 지식산업사, 1980, 36면

115) 박경리, 앞의책, 197면

116) 박경리, 『시장과 전장』, 지식산업사, 1980, 301-302면

117) 박경리, 앞의책, 369면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들은 소외된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생명의지에 닿아 있다. 삶이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삶의 충만함과 그 생명의지를 자신들의 내면에서 확인한다. 이러한 생명의지는 더 나아가 생명의 원천인 『토지』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결국 박경리 소설의 인간상들은 ‘소외’라는 의미망으로 묶어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곧 박경리 소설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된다. 즉 소외를 통해 박경리 소설을 이해하는 것이 박경리 문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박경리 소설에서의 소외의 의미는 충만한 삶과 그 생명의지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소설가들이 맨 처음 글을 쓸 때는 먼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다가 차츰 타인의 구원에 대해 쓰게된다. 글을 쓴다는 것, 남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용기는 진실로 세상을 향해 그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작가 자신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경리 역시 처음 글을 쓸 때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단편소설에서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이 투영된 작품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어느 정도 작가 자신의 성찰이 이루어진 뒤에는, 장편으로 옮겨가면서 타인의 구원을 향해 작품 영역도 확장된다. 즉 자신의 소외된 삶에서 타인의 소외된 삶으로 그리고 모든 생명의 삶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경리는 자신의 삶이 평탄했더라면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글을 썼다고 했으며, 그리고 표현이 치졸하고 미숙했지만 그 생각에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만 온전치 못한 개인의 삶에서 온전치 못한 모든 생명의 삶으로 확대된 것이 다름 뿐이라고 한다.

불행하고 온전치 못했던 박경리의 소외된 삶은 문학을 하게끔 했고, 그에게 있어 문학을 하는 것은 곧 생명을 키우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박경리는 어려서부터 반항정신과 자기 자신의 환경에 대한 거부감 속에서 자라게 된다. 그가 어른이 되어서는 상실의 연속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고, 이러한 박경리에게 있어서 그 선택은 문학이었다. 박경리는 문학 속에서 먼저 자기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구원을 위해 쓴 것이다.

이 논문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을 중심으로 초기 소설을 고찰하였다. 박경리 초기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사회 변화에 대응해 어떤 방법으로 소외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박경리 문학 전체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소외의 요소들을 그 초기소설에서 세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미학적 특질을 밝히고자 함이었다. 그에 따라 II장에서는 소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소외에 관한 철학적인 접근 방법과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을 살펴 보았다.

첫째, 철학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인 헤겔과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이론을 고찰하고 그들의 공통 특징을 정리하였다.

둘째로 사회학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소외의 용어에 대한 연원을 살펴보고 마르크스와 시이만의 이론을 고찰한 다음에 프롬의 소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철학적 입장과 사회학적 입장을 포괄적으로 아우른 신오현의 “소외란 자기 동일성의 결성개념”이라는 정의가 그 타당성이 있음을 알게 하였다.

III장에서는 박경리 초기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대응하며 소외되는가에 따라 존재론적 관점과 사회 현상론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위선과 기만의 세계에 의한 소외로 여기서는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작품화되어 있으며, 물신화의 논리에서 가난과 불신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마저 잃고 소외되는 경우이다.

둘째로, 폐쇄적 성격에 의한 소외의 경우는 경계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독존(獨存)의 세계에서 인물들의 고정된 삶의 자세를 알 수 있었다.

셋째, 사랑의 상실로 인한 소외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조건(벽지)과 사랑

을 할 수도 있는 조건(반딧불), 그리고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조건(비는 내린다)에서 주인공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넷째로 사회적 냉대에 의한 소외에서는 소외당하는 인물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소외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이념에 의한 소외에서는 하기훈 자신이 선택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환상은 오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기훈은 자기 신념의 정당화를 위해 자신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자처하며 그의 선택이 오류임을 애써 부인하고자 한 것이다.

IV장 단편에서의 소외의 의미에서는 앞장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에 박경리의 단편에 나타난 소외의 특징이 주로 등장 인물들의 반항과 거부임을 지적하고 당대 타 작가들에게 나타난 소외의 특징과 비교해 보았다. 그 다음에, 단편에서는 소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이 장편으로 확대되면서 소외의 극복의지로 작가의 의식이 변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소외의 극복의지는 살려고 하는, 살아 남아야 한다는 생명의지로 이어지고 나아가 생명의 원천인 『토지』에 까지 연결됨을 살폈다. 이렇게 볼 때 소외는 곧 박경리 소설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며, 박경리 소설에서의 소외의 의미는 충만한 삶과 그 생명의지를 예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본고는 작가 박경리의 초기소설 연구에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미로 본 논문을 시작하였다. 부족한 초기소설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박경리 단편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을 고찰하여 소외의 의미를 밝힌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박경리, 「불신시대」, 『한국대표문학전집』 10, 삼중당, 1973.
_____,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19, 지식산업사, 1987.
_____, 「박경리 단편선」, 서문당, 1997.
_____, 「Q씨에게」, 박경리문학전집16, 지식산업사, 1981.
_____, 「거리의 악사」, 민음사, 1997.
_____, 「창작 실기론」, 세계문예강좌4, 현대문학사, 1963.
_____, 「시장과 전장」, 한국소설문학 대계40, 동아출판사, 1995.
_____, 「표류도」, 지식산업사, 1980.
_____, 「김약국의 딸들」, 『한국대표문학전집』 10, 삼중당, 1973.
_____, 「토지」 1-4권까지, 솔출판사, 1995.
_____, 「작가는 왜 쓰는가」, 작가세계, 1994, 가을호.
_____, 「문학과 삶」, 현대문학, 1994, 10월호.

2. 논저

1)국내서

<단행본>

- 구인환외,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삼지원, 1989.
권영민외,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김윤식,정호웅 공저, 「한국소설사」, 예하, 1999.
김정자, 「소외와 서사학」, 태학사, 1998.
김종순, 「이별과 아픔이 없는 사랑을 위하여」, 우성출판사, 1991.
김종호, 「실존과 소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0.
김주연, 「현대문화와 소외」, 현대사상사, 1976.
김중술,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김현, 김윤식 공저,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7.
 김현자외, 『한국의 여성시학』, 깊은샘, 1997.
 김화영, 『사르트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박병학, 『사랑의 수업론』, 교육과학사, 1997.
 박창희, 『갈등과 소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9.
 윤병로, 『한국현대소설의 탐구』, 범우사, 198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6.
 ———,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7.
 임춘식, 『현대 사회와 인간소외』, 한남대학교출판부, 1990.
 정 종, 『철학과 문학의 심포지엄』, 고려원, 1992.
 정명환, 『한국작가와 지성』, 문학과 지성사, 1978.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8.
 정문길, 한동원 공저, 『헤겔』,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논문 및 평론>

김기호, 「성격에 따른 여가활동과 생활 만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9.
 김동숙,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논문, 1998.
 김만수,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기」, 작가세계, 1994, 가을호.
 김명복, 「나는 책상하나 안고 살아왔다」, 현대문학, 1994.10월호.
 김명희, 「박경리 소설의 비극성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논문, 1994.
 김병익, 「생활과 생명의 엇갈림」, 『우리시대의 현대문학』, 계몽사, 1986.
 김외곤, 「전후 세대의 의식과 그 극복」, 작가세계, 1994, 가을호.
 김외곤, 「전후세대의 의식과 그 극복」, 작가세계, 1994, 가을호.
 김용구, 「박경리론:가족, 그 한의 뿌리」, 권영민 엮음,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 김우종, 「현역작가 산고」, 현대문학, 57호.
- 김윤창, 「한국현대 소설의 소외의식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3.
- 김정남, 「이호철 소설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97.
- 김현정,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6.
- 김형국, 「소설농사와 발농사가 합일하는 문화」, 『우리시대의 현대 문학』, 계몽사, 1986.
- 김혜정, 「박경리 소설의 여성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논문, 1999.
- 류보선, 「비극성에서 한으로 운명에서 역사로」, 작가세계, 1994.
- 박승위, 「도시인의 소외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 경북대학교.
- 박이문, 「삶의 구조」, 김화영역음, 『사르트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 백지연, 「박경리 초기 소설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95.
- 성기숙, 「한국사회에서의 소외의 구조적 원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7.
- 송우혜, 「이 사람을 보라」, 현대문학, 1994.10월호.
- 송호근, 「삶에의 연민, 恨의 美學」, 작가세계, 1994, 가을호.
- 송희경,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연구」, 대진대학교, 석사논문, 1998.
- 신오현, 「소외이론의 구조와 유형」, 정문길역음, 『소외』, 문학과지성사, 1984.
- 신현숙, 「박경리 문학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93.
- 안정택,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나는 소외의식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논문, 1996.
- 월터카우만, 김병익역, 「소외에 대한 관심」, 정문길역음, 『소외』, 문학과지성사, 1984.
- 윤혜주, 「『보바리 부인』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과 소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3.

- 윤홍길, 「큰 고통 앞에 바치는 큰 꽃다발」, 현대문학, 1994.10월호.
- 이재선, 「『토지』와 농경적 상상력」, 현대문학, 1994, 10월호.
- 이태동, 「환상과 현실의 사이」, 『한국 현대소설의 위상』, 문예출판사, 1986.
- 이혜정, 「프롬 : 사랑의 윤리」, 『성과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성찰』, 서광사, 1999.
- 장경렬, 「슬픔, 괴로움, 고독, 사랑, 그리고 문학」, 작가세계, 1994.
- 전상미,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8.
- 전영태, 「흙에서 흙으로, 토지에서 토지로」, 현대문학, 1994.10월호.
- 정현기, 「『토지』 해석을 위한 논리 세우기」, 작가세계, 1994.
- 조남현, 「『시장과 전장』과 이념검증」, 『한국의 전후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회, 1991.
- 조순자, 「박경리 소설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1994.
- 조연현, 「윤리적 의미의 결핍과 의식의 과잉」, 현대문학, 1960.1월호.
- 조윤아, 「박경리 소설의 죽음 모티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3.
- 조정래, 「큰 날개 큰 봉우리」, 현대문학, 1994.10월호.
- 채진홍,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확인」, 송하춘, 이남호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 한용임, 「박경리의 『토지』 이전 장편소설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4.
- 현길선, 「소설가 명예심과 소설의 자존심」, 현대문학, 1994.10월호.

2)국외서

- 에리히프롬, 최의선역, 『사랑의 기술』, 일신서적, 1994.
- 안드레아스, 김영락옮김, 『참다운 사랑의 기술과 허튼 사랑의

질책』,범우사, 1997.

칼릴지브란외, 조성현역, 『슬퍼서 차라리 아름다운 고독이여』, 현대문예사, 1993.

발터 비멜, 신상희옮김, 『하이데거』, 한길사. 1997.

프리츠 파펜하임, 황문수역, 『현대인의 소외』, 문예출판사, 1982.

보토모어, 박찬표옮김, 「사상의 개관」,최장집엮음, 『마르크스』, 고려대학교출판부,1990.

아리스토텔레스, 손명현역, 『시학』, 박영사, 1991.

ABSTRACT

An Aspect of an Alienation in Park Kyoung-Lee's Novel

Kim young mee

Major in Contemporary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In 1950's, the postwar writers represented a spirit of a resistance and a rejection generally. Among the writers, especially, Park Kyoung-Lee represented a spirit of a resistance and rejection about the reality that the women were confronted in her life. It is formed rejection which results from a loss characteristic issue, resistance about cynical and faithless society. Her early novels are noticed from the literacy world, as character's economic poverty is connected with a social situation and an issue of self-inside. Her novels that emphasized character's mind description varied constantly her work domain

attempting diversify about subject or method. Later, her novels is developed to level that presents Korean life aspect through 『Toji』. In other word, she represents characters who alienates as rejection and resistance. Such various elements are contained many fundamental conditions exposed aesthetics.

This thesis was analyzing mainly the aspect of alination through Park Kyoung-Lee's early novel. This is the reason why understand better her work areas. Alienation is the relation of indivisibility between the her life and literature because of her alienating life and age situation. In conclusion, this represents about the nature and aspect of alienation.

First, it is alienation based upon faithless and personality. It contains writer's autobiographical element. It is alienation based upon the loss of truth by reason of the materialism.

Second, it is alienation based upon the loss of love. It is alienation based upon the condition to do love, do not love and must not love.

Third, it is alienation based upon social inhospitality. It it is alienation based upon character's confronting environments.

Last, it is alienation based upon ideology. In the novel, Ha Gi-Hoon didn't accept reality that his ideology is fiction. He denies reality pretending himself war supplies for justifying his belief.

These aspect of alienation is better matured to a full-length novel. A full-length novel is showed the will to conquest the alienating life.

In the end, Park Kyoung-Lee novel's characters are bound as an

alienation, that is an important core in Park Kyoung-Lee's novel. Namely, an alienation is a very important element for understanding of Park Kyoung-Lee's novel. The meaning of an alienation in Park Kyoung-Lee's novel is predicting a sufficient life and that life will.

The subjective approach through an aspect of alienation was very effected to examine of Park Kyoung-Lee's novel.